

02 이회범 회장 취임사
“서울대인 모두는 하나입니다”

04 윤지나 서울대공원 박제사
시베리아 호랑이 박제 화제

06~07 화제의 동문 국회의원
박 진, 김민석, 서범수, 장철민

15 황인준 라인 최고재무책임자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덤벼라”

26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
입학 50주년, 그리고 VERITAS LUX MEA

“동문들이 힘입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회범 제28대 회장 취임

“동문 화합과 서울대인 자긍심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 등 회장단 인선 마쳐

2020년도 본회 정기총회·제22회 관악대
상 시상식 및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모
임을 지난 6월 17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했다.

당초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앞
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함
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간과 장소를 옮겼
다. 참석 동문들의 건강과 정부의 방역 지
침 등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좌석
은 한 칸씩 띄어 배치하고,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배부하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이회범(전자공학67-
71) 회장직무대행이 정식으로 본회 회장
에 취임했다. 감사에는 곽수근(경영73-
77) 모교 경영대 명예교수와 김영갑(법학
74-78) 서광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
다. 또 2019년도 결산안과 보류됐던 2018
년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는 동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제22회 관악대상
수상자인 박희백(의학51-57)·허진규(금
속공학59-63)·박명윤(보대원74-76) 동
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가족과 동문의 박수갈채 속에 축하 메달을



지난 6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본회 정기총회에서 이회범 신임 회장이 신수정 전임 회장으로부터 동창회기를 이양 받고 정식으로 제28대 회장에 취임했다.

받았다. 〈수상자 인터뷰 제505호 참고〉
단과대학·특별과정 및 직능지부, 지방
지부 전임 동창회장으로 봉사한 유인수
(회화66-70)·곽병선(교육66-70)·이혜숙
(가정교육68-72)·최규팔(제약70-74)·박
명윤·전병성(한대원83-85)·이용식(토목
공학79-83)·송두영(SGS 22기)·김병관
(AFB 12기)·이성태(ALP 15기)·김기종
(FIP 8기)·이형규(ABKI 6기) 동문 등 35
명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오랫동안 지
속적으로 회비와 협찬금을 보내오며 동창
회를 후원한 경세호(섬유공학53-57)·신

현일(수의학57-61)·김하진(수학58-62)·
서기호(농학60-64)·황의강(치의학61-
67) 동문 등 114명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
다.

제21대 국회의원에게 당선된 동문들을 축
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개원 초기 바쁜
일정 속에 참석한 김진애(건축71-75)·박
진(법학74-78)·하영제(농업교육74-78)·
유경준(경제81-85)·유상범(사법84-88)·
윤희숙(경제89-93)·김형동(인문정보94-
01)·윤재갑(ACAD 59기)·정경희(역사
교육80졸)·서정숙(HPM 36기)·양금희

(SPARC 24기)·강민국(ACAD 72기) 의
원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 회장은 취임 일
성 대신 PT 형식으로 동창회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취미를 살리며 행복한 동창회’, ‘회원 복
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
월 회장직무대행을 맡은 직후부터 실현해
온 구체적인 일정과 확대된 회원 혜택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관계기사 2면
이 회장은 회칙에 따라 신수정 전임 회

장을 명예회장에 추대했음도 알렸다. “그
간 신수정 전 회장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
눴다.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최근 본회
에 사재를 털어 1억원을 추가로 기부해 주
셨다”며 신 명예회장에게 존경을 표했다.
또 부회장 130여 명 등 회장단 구성이 마무
리됐으며 고문 58명, 자문위원 35명을 위
촉했다고 밝혔다. 몇 해간 동창회를 둘러
싼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고 동창
회 화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동창회 회칙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점이
있다. 언택트(Untact) 시대에 총회에서만
논의를 할 수 있다거나, 회장 추대위 관련
분명치 못한 부분이 회칙에 있다”며 “앞으
로 2년간 투명하고 단합된 동창회가 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천명했다.

어려운 시국에 마련된 자리였지만 참석
자들은 박수와 격려로 신임 회장과 동창회
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오세정
(물리71-75) 모교 총장은 축하사에서 “지
금까지 그레웠듯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공동
체인 서울대 동문들이 최선두에서 어려움
과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찬금을 보내온 동문도 많았다. 권우정
(경전원 11입) 동문이 1,000만원을 협찬했
으며, 이정아(농가정61-66) 동문은 병석
에 있는 남편과 인연이 있는 신임 이 회장
의 취임을 기념하며 아들 박해정(사법86-
90) 동문의 이름으로 500만원을 협찬했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고급 와
인과 우산을 증정했다. 박수진기자

관악춘추

몽쳐서 남 주자



강경희
외교84-88
조선일보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올 초 코로나 와중에 TV조선에서 방
영한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
국민들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 여기
서 상위에 뽑힌 트롯맨들이 학교 교실을
무대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하는데 이 교실의 급훈이 ‘볼러서 남 주
자’다. 열심히 노래 불러 다른 사람들 기
쁘게 해주는 게 목표인 학교다.

이 슬로건은 서울대인(人)이기도 한
한동대 설립자 고 김영길 초대 총장의
‘공부해서 남 주자’를 떠올리게 했다. 작
년에 별세한 김 전 총장을 몇 년 전에 만
나뵈었다. 학창 시절 ‘공부해서 남 주
자’란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자
란 세대로서 ‘공부해서 남 주자’는 그의
교육 철학은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깨달

음을 줬다. 일곱 글자 중에 딱 한 글자 바
꿨는데 그 의미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 일어났다.

혈기 왕성한 10대에 닭장처럼 좁은 교
실에 갇혀 재미 없는 암기식 공부를 머
리에 쑤셔넣어야 하니 어지간한 인내심
과 절제력 아니면 해내기 힘든 게 한국
식 암기 공부다. 엉덩이 들썩이는 제자
나 자녀들을 놀려 앉히면서 어른들은
“나 좋아하고 공부하라는 거냐.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끝도 없이 공
부 이기주의(利己主義)를 강조했다. 고
김영길 총장은 1995년 2월부터 19년간
한동대를 이끌면서 ‘공부해서 남 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Why not change
the world?)’ 같은 ‘공부 이타주의(利
他主義)’로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을 특
히 강조했다. 21세기에는 창의적인 지
식 교육과 함께 정직·성실 같은 인성 교
육이 필요하다는 교육 철학이었는데 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발상이던가.
‘공부해서 남 주자’ 시대의 서울대인

은 또래보다 조금 나은 참을성을 발휘한
덕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시 관문을 통과
할 수 있었던 ‘공부 이기주의의 승자들’
이다. 그래서인지 이 이기적인 경쟁자
들이 학원 따지며 뽕뽕 뭉치는 건 혹 가
진 자들끼리 더 가지려는 담합 행위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 타대학 동창회에서는
활발한 모임이 오히려 서울대 동창들끼
리는 덜 활성화된 측면도 있다.

일벌레로 소문난 신임 이회범 동창회
장의 취임 일성이 배움도, 교류도 활발
하게 일어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것
이다. 동창들끼리 더 자주 뭉치게 만들
고 모교와도 끈끈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
겠다고 한다. 나라가 잘 되려면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해서 남 주자’ 대신 ‘공부
해서 남 주자’의 가치관으로 재무장해
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대 동창
회도 ‘우리끼리 뭉치자’에 그치지 말고
‘몽쳐서 남 주자’를 모토로 의미있는 모
임과 교류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이다.

신수정 명예회장 1억원 쾌척



신수정(기약59-63·사
진) 총동창회 명예회장
이 최근 본회에 장학금 1
억원을 쾌척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
지 제27대 본회 회장으로
봉사한 직후 이뤄진 뜻깊은 기부다.

앞서 2017년에는 신수정 명예회장의 모
친 김석태(경성여자사범39졸) 동문이 본
회에 1억원을 기부한 적 있다.

지난 5월 기부자 중에는 ‘이름 없는 천
사’도 두 명이 있었다. 5월 27일 고려의
한 동문이 건립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현
중인 본회 역사연구기록관을 짓는 데 써
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본지와 통
화에서 그는 익명 보도를 요청하며 한사코
말을 아꼈다. 5월 26일에는 기존 기부자 동
문이 500만원을 추가로 보내왔다. 몇 차례
에 걸쳐 4,600만원을 조성한 해당 동문은
이번 기부로 특지장학금을 설립하고 장학
금 명칭도 정할 수 있게 됐지만 특지명 또
한 무명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일(체육교육13-17) 동문의 어머니
윤혜정 씨가 아들의 이름으로 5년간 총 600

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으며, 앞서 4월
27일에는 정춘자(국약78-82) 동문이 30만
원을 기부했다. 2015년 본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정 동문은 2018년부터 특별한 약정
없이 꾸준한 기부금을 보내오고 있다.

기존에 10만원을 기부했던 김선용(무역
68-72) 선명회계법인 고문은 매달 2만원
씩 2년간 기부를 약정했고, 이상기(서양
사81-87) 아시아엔 대표는 1만원씩 무기
한 기부를 약정했다. 4월 24일 김성동(기계
공학75-79) 금오공대 교수가 5만원을, SK
E&S 법무COE로 재직하는 류치석(공법
84-88) 동문이 3만원을 기부했다.

1년간 약정 기부해온 전하장(약학67-
71) 서울약국 대표는 지난 5월 28일 기부를
마치고 총 1,200만원을 조성했다.

장학금 기부 참여하려면

홈페이지 www.snua.or.kr
계좌번호(예금주: 재단법인 관악회)
신한 140-006-909438
농협 069-01-272391
우리 1005-202-771270
문의 02-879-8209, snua7@snu.ac.kr

회원을 위한 동창회, 공부하는 동창회...4대 사업 시동 걸었다

엠베서더, The-K 호텔 등 할인
명강사 초청 월례조찬 포럼도
6월말부터 모바일 우대증 발급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납부해야

본회가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취미를 살리며 행복한 동창회’, ‘회원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서비스와 모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희범 회장은 지난 5월 21일 명지의료재단 및 인천사랑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의학86-92)을 시작으로 26일 The-K호텔 앤리조트(대표 강준식 불문71졸), 6월 10일 엠베서더호텔그룹(회장 서정호), 라마다군산호텔(회장 이승우 법학75-79), 하늘계곡연수펜션(대표 이주찬)과 동문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 회원을 위한 동창회 구현을 위한 행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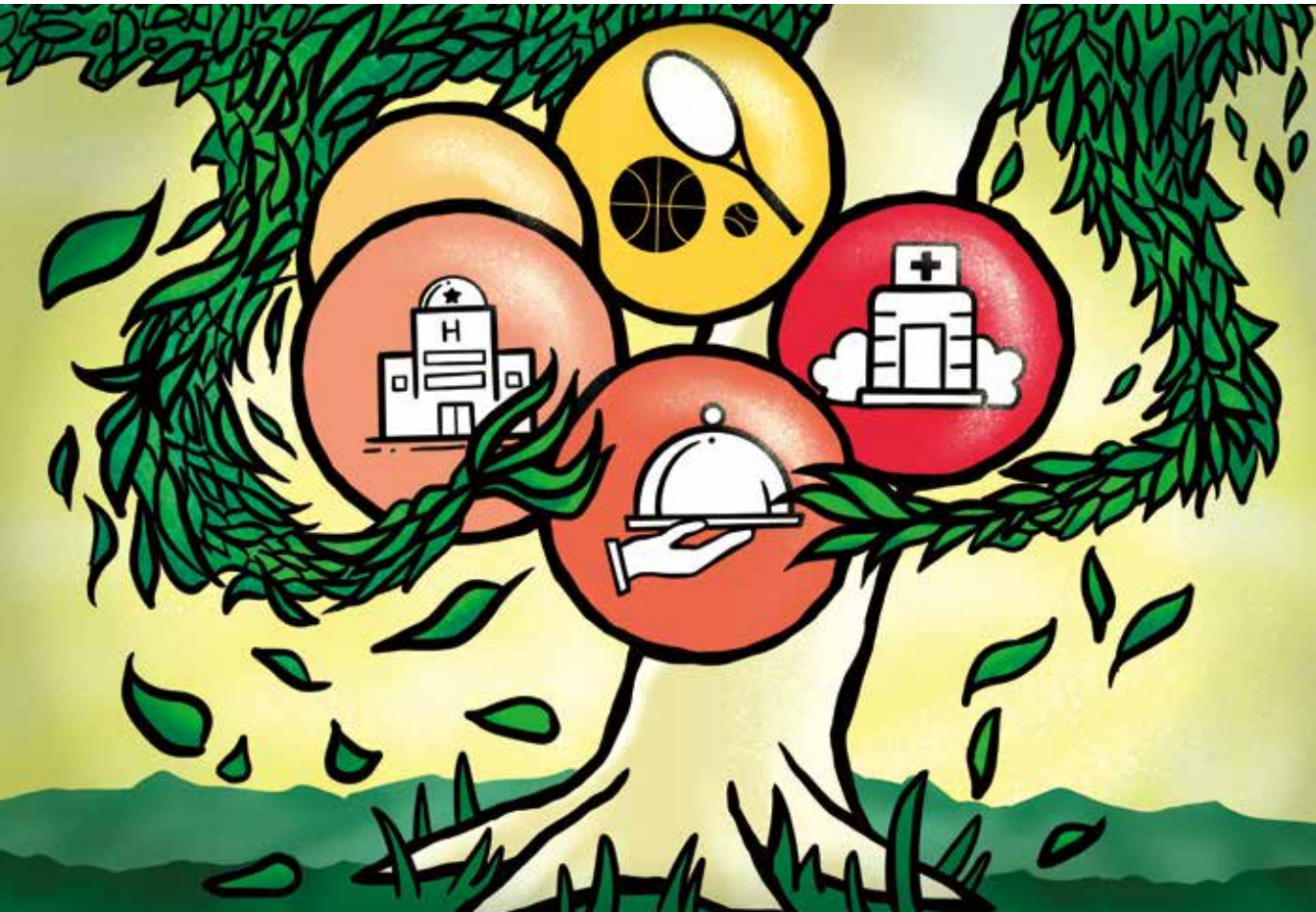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병원을 비롯해 전국 호텔, 리조트 등에서 10~50%의 동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에다함상조, 제주라마다호텔 할인 협약을 6월 25일 체결한다. 호텔·병원뿐 아니라 동문들이 운영하는 식음료 업소와도 할인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범 회장은 “동창회에 협약을 맺은 곳은 모두 서울대 가족”이라며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서울대가족업체3면 표창조〉

‘공부하는 동창회’는 신지식인과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청해 최신 지식을 공유한다는 목적 아래, 월례조찬회와 공부하는 모임을 결성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월례조찬회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진행하며, 첫 모임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을 초청해 9월 10일 셰라톤서



일러스트 쇼여정(디자인09-13) 동문

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 계획이다. 10월은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11월은 김난도(사법82-86) 모교 교수, 12월은 경제부총리 또는 경제연구위원장이 초빙 강사로 예정돼 있다.

월례조찬 연회비는 올해의 경우 20만원(4개월치)이며 2021년부터는 60만원이다. 1회만 참가시 회비는 5만원이다. 조찬이 제공되며 시기에 적절하고 유익한 책 한 권을 증정한다. 〈3면알림참조〉

공부하는 소모임은 독서, 서예, 그림, 음악, 역사, IT기기 활용법 등의 분야에서 취미 겸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각

분야별로 회장 및 간사를 선출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총동창회는 장학발당 장소 사용 및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임 참여자 수, 모임 횟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취미를 즐기는 동창회를 위해 등산, 골프, 바둑, 테니스, 사진, 국토문화기행 등 취미클럽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7월 5일 바둑대회, 8월 28일 등산대회, 9월 19일 골프대회가 열린다. 취미별 모임도 각 분야마다 회장과 간사(총무)를 선출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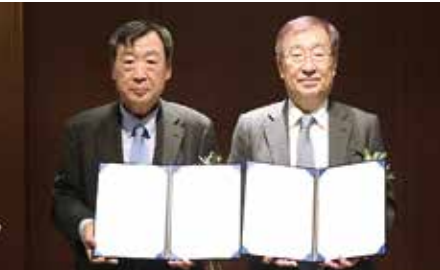
총동창회는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동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 동창회 산하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해 위원장과 위원들을 두고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사회공헌위원장으로 김중훈(건축69-73) 한미글로벌 회장을 내정한 상태다. 그밖에 자랑스러운 서울대동창인상을 신설해 매월 월례조찬회 때 시상할 계획이다.

병원, 호텔 등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문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 회원 우대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에 접속해 첫 화면 우측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를 클릭해 순



이희범 회장이 지난 6월 한달간 (왼쪽부터)The-K호텔앤리조트 강준식 대표, 엠베서더 호텔 그룹 서정호 회장, 라마다 군산 호텔 이승우 회장, 하늘계곡연수펜션 이주찬 대표와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인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희범(전자공학67-71) 회장 취임사 <요지>

저는 오늘 동창회장으로서, 기쁨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대 총동창회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두 서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신수정 명예회장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신수정 명예회장님은 얼마전 사재를 털어 동창회에 1억원을 추가로 기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명예회장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2년간 동창회의 화합과 서울대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100세 시대에 부응하여 취미를 살리며 행복한 동창회,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과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모교 교수님과 사회 저명 인사들

을 모시고 매월 월례조찬 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9월에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10월에는 최재봉 교수의 포도 사피엔스, 11월에는 김난도 교수의 내년도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특강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소모임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클럽, 서예클럽, 그림과 음악, 동양사와 서양사, 중국학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등산, 바둑, 골프, 테니스, 사진, 국토문화기행 등 각 분야별로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6월 중에 분야별 회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대인으로서 자존심과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더K호텔, 엠베서더호텔, 팔래스호텔, 라마다 군산 호텔, 명지의료재단, 하늘계곡연수펜션 등과 MOU를 체결하여 서울대 동문이 시설 이용 시 일정액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병원과 호

텔, 리조트, 음식점 등과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인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회원이나 지구촌의 구성원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동창회에서는 필요한 인프라와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부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고문님들과 자문위원님들도 각 분과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동창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님과 각 단과대학 회장단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기능을 강화하고 정관도 시대 정신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겠습니다. 매월 발

간되는 총동창회 신문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을 소개하고, 서울대인들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에 이어 7월 5일에는 동문 바둑대회, 8월 28일은 등산모임, 9월 10일에는 첫 월례조찬회, 9월 19일은 동문 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10월에는 관악언론인회 총회와 월례조찬회, 10월 18일 홈커밍데이와 함께, 가을에는 연극공연,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3만 동창회원 여러분! 이제는 단합입니다. 서울대인 모두는 하나입니다. 학교와 동창회도 하나이고, 졸업생과 재학생도 하나입니다. 43만 회원들은 소속과 직업, 학번과 학과를 넘어 하나입니다. 서울대인들이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은 것처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기 위해 단합하여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귀를 크게 열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카드가 스마트폰에 저장돼 별도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카드 발급이 어려운 동문은 총동창회 사무처(02-702-2233)로 연락하면 실물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제작 및 발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모바일 카드 발급을 권한다. 카드를 발급받기 전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호텔·병원 할인, 행사 참여, 카드 발급은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연회비 납부 동문에 한해 가능하다.



정기총회 협찬 감사합니다

행사 공동 진행	
△서울대발전기금	1000만원
△권우정 경영전문대학원	11
	500만원
△박해정 법대	86
	300만원
△성기학 상대	66
	200만원
△정원호 HPM	36기
	100만원
△윤세영 법대	56
△박명운 보대원	74
	70만원
△이임택 공대	61
	50만원
△김태영 법대	79
	30만원
△박순태 상대	56
△김종대 농대	72
△임장주 SPARC	11기
	20만원
△정지형 법대	58
△김소선 미대	63
△김운섭 AMP	61기
△최영일 FNP	97기
	10만원 이하
△정하규 상대	51
△경세호 공대	53
△이상실 약대	55
△박수복 농대	56
△박용안 문리대	57
△남대우 상대	58
△윤병택 음대	58
△송경희 음대	59
△고재천 법대	60
△정용인 법대	60
△윤우진 상대	61
△정주석 법대	61
△박순영 보대원	63
△조종만 치대	63
△한경자 간호대	63
△신기약 행대원	64
△정해영 농대	66
△곽찬호 신대원	69
△박복순 가정대	70
△황태인 공대	71
△금춘수 사회대	72
△정대봉 음대	72
△조현국 경대원	73
△최규원 치대	77
△이용식 공대	79
△김명경 가정대	83
△윤일권 공대	90
△임세한 행대원	기
△방동식 ACAD	27
△권오신 SGS	5
△이용민 HPM	23
△안성훈 FIP	1
△김기종 FIP	8
△김해연 ALP	15
△남병희 ABKI	4
△김덕기 상대	52
△전호인 상대	53
△김용술 상대	56
△이윤용 공대	56
△오복동 법대	57
△박성훈 공대	58
△김정균 치대	59
△이동호 사대	59
△윤용혁 사대	60
△황화자 음대	60
△이양재 보대원	61
△박석훈 문리대	63
△정근화 사대	63
△최석진 사대	63
△김신원 공대	64
△김인동 행대원	65
△김진원 공대	68
△김재동 공대	70
△강용현 법대	71
△권오근 법대	72
△박영안 경영대	72
△이준웅 행대원	73
△최금락 사회대	76
△김진국 사회대	78
△권선훈 공대	83
△신종근 의대	87
△김주현 행대원	92
△심종덕 AIP	15
△이왕열 ACAD	33
△송두영 SGS	22
△김상철 AMPFRI	4
△양태운 FIP	4
△양준호 ALP	11
△김용배 IFP	2
△류종기 ABKI	4

*6월 8일 이후 추가 협찬 동문 명단은 7월호 동창신문에 게재.

본지 신임 논설위원 10명 위촉, 27명 체제 갖춰

새로운 회장단 출범에 발맞춰 총동창신문 논설위원을 대거 보강했다. 김의구(철학80-84) 국민일보 논설위원, 박종성(서양사82-86) 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 오형규(국문82-89)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오정환(공법83-87) MBC 부장 등 10명의 논설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로써 기존 17명의 논설위원을 포함해 27명의 논설위원이 품격 높고 알찬 동창신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논설위원들은 관악춘추와 느티나무광장 집필을 비롯해 매월 편집회의에 참석, 동창신문의 방향을 논의한다.

신임					
이름	학과·학번	직함	이름	학과·학번	직함
김의구	철학80-84	국민일보 논설위원	김창균	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주간
박종성	서양사82-86	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	이선민	국사80-84	조선일보 선임기자
오형규	국문82-89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전영기	정치80-84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정환	공법83-87	MBC 부장(전 보도본부장)	김광덕	정치82-86	서울경제 논설실장
허범구	사회83-89	세계일보 취재담당부국장	박민	정치82-86	문화일보 편집국장
김정욱	경제84-91	매일경제 편집국장	방문신	경영82-89	SBS 논설위원
김정곤	사회87-94	한국일보 사회부장	안충기	국사82-89	중앙일보 기자, 화가
김희원	인류89-93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국사82-86	전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장
이지영	약학89-93	중앙일보 대중문화팀장	강경희	외교84-88	조선일보 논설위원
하임숙	영문91-95	동아일보 산업부장	임석규	언어84-91	한겨레 편집국장
기존			정연옥	공법85-89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름	학과·학번	직함	성기홍	사회86-90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이용식	토목79-83	문화일보 주필	신예리	영문87-91	JTBC 보도제작국장
			전경하	독어교육87-91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지영	식품영양87-91	SBS 문화부 선임기자
			김영희	고고미술88-92	한겨레 편집국 총괄부국장

건강검진비 감면 병원

감면내용	병원명	연락처 / 감면범위
1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배우자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배우자 부모 제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 2번)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국립암센터	031-920-1212
10~30% 감면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배우자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배우자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비급여 진료시 20% 감면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장례식장 15% 감면
	인제대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00-7000(비급여) *간강검진 10%(1~3월 30%) 감면, *비급여 진 료 10 %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제천 명지병원 인천사랑병원	031-810-6383 043-640-8450/8451 032-457-2800 *간강검진 20~30% 우대 *비급여진료 10% 우대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최대50% 감면 검진금액: 일반검진 25만원 종합검진 35만원 정밀검진 50만원	서울직심자병원	02-2002-8777 *장례식장 10% 감면
	제일병원	02-2000-7200(내선2번), 7401~3
	차움건강센터 삼성분원	1800-7750(내선1번) *일반검진 제외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02-3476-7760

서울대가족 호텔 할인

구 분	할인율(%)				비 고
	객 실	식음료	피트니스	세미나	
서울	40	10	(50)	30	성·비수기 구분 없음
경주	주중(50) 주말(40)	-	5,000원 할인	-	식사 및 음료 할인
지리산	50	-	30	-	서울호텔은 투숙 시 할인 가능
설악산	5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 분	할인율(%)		
	객실	식음료	연회(미팅룸 대여 및 식사할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10	15	5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10	10	5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강남	10	10	10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명동	10	10	10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10	10	10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10	-	10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라마다 군산 호텔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400 ☎ 063-441-8000				
객실타입	정상요금	총동창회 할인요금(세금, 봉사료 포함)		
		주중 (일~목)	주말 (금~토)	연휴 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만	8만	10만	11만
스탠다드 패밀리티윈 /디럭스더블	24만2,000	8만7,000	11만	12만
디럭스 패밀리티윈 /온돌	26만4,000	9만4,000	12만	13만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0	1/23-26, 4/29-5/4, 7/17-8/15, 9/29-10/3, 10/8-10, 12/24-31		
	2021	1/1-2, 2/10-13, 2/27-28, 7/16-8/21, 9/17-21, 10/8-9, 12/24-25		

※ 전 호텔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하늘계곡연수펜션 ※ 충북 제천시 한수촌 송계리 188 ☎ 043-653-2013				
구 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 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객실 : 성·비수기 구분 없음 *세미나 : 회의장 렌탈료 할인

알림

제17회 동문 바둑대회

- 일시 : 2020년 7월 5일(일) 09:30 ~ 17:00
- 장소 : 서울대 체육관(71동, 관악캠퍼스 소재)
- 참가대상 - 동문, 재학생 및 교직원(단, 아마 7급이상)
 -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 대회요강 - 단체전 : 단과대학, 지부별 5명(후보 1명 추가 가능)
 - 개인전 : 접수된 기력에 따라 최강, A, B, C, D, E, F조로 편성
 - 대국방법 : 변형된 스위스 리그 진행
- 참가비 : 무료(다만 동문은,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총동창회 연회비 납부하신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2020년 6월 19일(금)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양식 참조 후 이메일(jang9869@hanmail.net) 또는 팩스(02-703-0755) 신청
- 오시는 방법
 -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서 5511번 버스를 타고 관악캠퍼스 경영대 정류장 하차.
 - 승용차 이용시 :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좌회전 또는 낙성대 후문 틀게이트 통과후 우회전 하여 체육관 주변에 주차.
- 예약신청 및 문의 : 대표 전화 02-702-2233, 담당자 02-879-8204

제1회 동문 등산대회

- 일시 : 2020년 8월 28일(금) 10:00 ~ 13:00
- 집결장소 : 서울대 정문 옆 관악산 입구 광장
- 코스 : 관악산 입구-호수공원-제4야영지-무너미고개-서울대 입암림-안양유원지 상단
- 참가비 : 2만원
 - 오찬과 간단한 선물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57 -입금 시 성함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 식사 예약 등으로 8월 26일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참가신청은 2020년 8월 25일(화)까지 접수 (팩스 02-703-0755,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www.snu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이름, 단체, 연락처 기재)
- 예약신청 및 문의 : 대표 전화 02-702-2233, 담당자 02-879-8204

9월 조찬회(SNUA이목회)

-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07:30 ~
- 장소 : 쉼터서울 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고속터미널 뒤)
- 강사 :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창인상 시상 : 수상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참가비 : 1회 5만원(올해 연회비는 4개월치 20만원, 2021년부터 60만원 예정)
- 신청방법 - 참가신청은 2020년 9월 1일(화) 까지 접수 (팩스 02-703-0755,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이름, 단과대학,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 예약신청 및 문의 : 대표 전화 02-702-2233, 담당자 02-879-8204
- ※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6회 서울대 동문 나눔골프대회

- 일시 : 2020년 9월 19일(토) 낮 12시 20분 동시 티오프, 골프장에서 오찬 가능.
- 장소 : 로드힐스CC(강원도 춘천시)
- 경기 진행 방법
 - 가. 경기구분(남·여 혼성팀 가능)
 - 1) 대표팀 : 단체- 4인 1팀 구성하며, 단과대학 및 지부별 2팀이상 출전 가능
 - *4인이 안될 경우 3인을 1팀으로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음
 - 개인- 개인별로 출전(단체전 출전선수는 모두 개인전도 출전한 것으로 함)
 - 2) 친선팀 : 개인별로 출전 가능
 - 나. 시상 대상별 순위결정 방법
 - 1) 대표팀 : 단체-사선 등록된 팀별(4명) 상위 3인의 성적 스트로크 경기성적 합산으로 순위 결정
 - 개인-개인별 스트로크 경기성적 순위 결정
 - 2) 친선팀 : 개인별 신편리오 방식 성적으로 순위 결정
- 신청 방법
- 가. 신청 접수 : 2020년 9월 10일(목)까지(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www.snua.or.kr) 양식 참조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 (팩스 02-703-0755,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나. 참가비 : 1인당 25만원(그린피·카트로·만찬 포함 / 캐디피·그늘집 팀별부담)
 - *참가비는 골프장 데스크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서울대총동창회)
 - *9월 11일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 문 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골프 담당자 (02-879-8204)
- ※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협찬을 해주실 동문님은 동일계좌로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협찬품도 가능합니다)
- ※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릉 ~ 유라시아를 잇는 동해북부선 53년만에 추진

통일부 남북교류 협력사업 인정! 강릉~제진 철도공사 조기착공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을 위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가 열립니다. 환동해 경제권을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북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동해를 둘러싼 지역을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단절 구간인 강릉 ~ 제진 사이 단절 구간(110.9km) 철도 건설을 2조8520억 원을 책정, 2021년 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베를린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 장저우 상해 강릉

코로나19 의심신고는 질병관리본부 1330

“박제 동물 코·수염·발톱은 진짜고, 눈알과 이빨은 가짜”

윤지나 (조소07-12) 박제사

동물원에서 수명을 다한 시베리아 호랑이 두 마리가 설원을 누비는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경력 11년차 서울대공원 소속 박제사 윤지나(조소07-12) 동문의 손을 통해서다. 지난 4월 서울대공원이 공개한 시베리아 호랑이 ‘코아’와 ‘한울이’의 박제 표본은 살아 있는 동물의 찰나를 포착한 듯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조소 전공인 윤 동문의 솜씨다.

국내에 박제사 국가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약 50명. 현역에 있는 20여 명의 국가공인 박제사 중 여성은 한 손에 꼽는다. 지난 5월 25일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윤 동문을 만났다. 동물 표본을 보관한 수장고와 작업실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전시와 연구,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물원의 죽은 동물을 살아 있을 때의 모습으로 복원한다. 가죽을 사용해 박제 표본을 만들고, 뼈를 사용해 골격표본을 제작한다.”

-이번에 박제한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었나.

“시베리아 호랑이 ‘한울이’ (암컷)와 ‘코아’ (수컷)다. 둘 다 이곳 동물원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울이는 15세인 2016년에, 코아는 16세인 2018년에 자연사했다. 코아는 참 잘생긴 호랑이었다고 했다. 동물이 죽으면 수의사가 박제사에게 연락을 준다. 상태를 보고 바로 박제를 결정했고 작년 3월부터 1년간 동료 박제사와 작업했다.”

-박제 호랑이 앞발에 눈가루를 묻힌 디테일에 놀랐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살던 환경을 재현하려고 눈발 배경을 택했다. 유튜브로 눈발을 뛰어다니는 호랑이 영상을 찾아봤더니 꼬리와 앞발에 눈이 많이 묻어 있었다. 뛰는 동작을 봐야 해서 사육사가 다른 호랑이들이 뛰어오르게 연출해주시기도 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다. 가죽을 직접 벗기나.

“수의사가 부검을 마치면 박제사가 사체를 작업실로 가져와 가죽을 벗긴다. 벗겨낸 가죽에서 살점이나 지방을 제거하는 견도 작업을 할 때는 구멍이 나기 쉬워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가죽을 유연하게 처리해 동물 모양 마네킹에 씌우면서 눈코입과 발가락 등 세부 표현을 해준다. 실과 바늘로 꿰매서 봉합한 다음 건조시키고 색칠과 털 정리로 마무리한다. 참새는 2주, 수달은 두세 달이면 완성인데 호랑이는 건조에만 한두 달이 걸렸다.”

-마네킹을 잘 만들어야 하겠다.

“동물의 몸 구석구석 기록해놓은 치수대로 정확하게 제작한다. 가볍고 잘 썩지 않는 발포우레탄을 깎아 만들고 철사와 파이프를 뼈대로 넣는다. 이번엔 각과 이프를 용접해 넣었다.”

-동물의 모든 부분이 박제에 쓰이나.

“박제에서 어디가 진짜고 가짜인지 많이들 묻는다. 모든 털과 수염, 발톱, 코는 진짜, 눈알과 이빨은 가짜다. 이번 호랑이들은 미국에서 수입한 유리 재질의 최신 의안을 썼다. 플래시를 비추면 진짜 동물의 눈처럼 빛을 반사한다. 입속은 치과에서 하룻 본을 떠서 만드는데 이번에는 고양이와 동물의 까슬까슬한 혀 느낌을 내려고 진짜 혀바닥 가죽을 사용했다.”

-고된 작업이 힘에 부칠 법도 한데.

“힘들지만 할 만하다. 원래 미대에서도 스케일 큰 작업을 많이 했다. 까다로운 부분은 있다. 부패가 되면 동물 피부에서 맥없이 털이 빠지곤 한다. ‘털이 밀린다’고 하는데, 박제사가 가장 싫어하는 현상이다. 호랑이 얼굴 부분 털이 밀려서 수습하



국내 드문 현역 여성 박제사 시베리아호랑이 위용 재현해

미국 자연사박물관 갔다가 미술·동물 결합 박제에 매료

고양이 두 마리 키워 봤지만 반려동물 박제, 권하지 않아

느라 애를 먹었다.”

-나이에 비해 경력이 길다. 언제부터 박제를 시작했나.

“2011년 학부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박제를 시작해 2013년 국가 자격증인 문화재 수리기능사(박제 및 표본제작공) 자격증을 땀다. 천연기념물을 박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박제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서울대공원에는 2015년에 입사했다.”

-박제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예중 예고를 나와 오래 미술을 했지만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려 했을 정도다. 미술과 동물이 결합된 일을 하고 싶었던 차에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예술 같은 박제 작품을 보고 박제가 그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모교 미대 재학 중에도 교수님들께 박제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 드리고, 동물을 소재로 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국내에 박제를 가르치는 곳이 있나.

“정식으로 가르치는 곳은 없어서 도제식으로 배운다. 학부생 때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의 유영남 박제사님께 배웠다. 수의대 동물해부학 연구실에서 해부학과 골격 표본 만드는 방법을 배운 것도 큰 도움이 됐다. 미국

박제학교와 캐나다 세계 챔피언 박제사 밑에서도 잠깐 공부했다.”

-박제사 시험이 어렵다고 들었다.

“세 번 만에 붙었다. 잉꼬와 꿩처럼 작은 새와 큰 새 한 마리씩 시간 내에 박제해야 하고 필기시험도 본다. 한 번에 붙는 일이 거의 드물다.”

-조소를 배운 게 도움이 되겠다.

“캐스팅(본 뜨기) 기법을 비롯해 조소에서 쓰는 재료와 기술이 박제 과정에서 비중이 높다. 그래서선 외국에선 조각가들이 박제사를 많이 한다. 호랑이 얼굴 모양을 잡을 때 점토를 붙여가면서 했는데 이럴 때 배운 걸 많이 활용한다. 박제사들 사이에선 마네킹을 직접 만드는 걸 높게 평가한다.”

윤 동문은 지금까지 불곰, 담비, 원숭이, 늑대 등 수백 점의 박제를 만들었다. 동물원에서는 한 해에 10마리 정도를 제작한다. 동물원 중 유일하게 박제사를 뒀은 서울대공원 수장고에는 98년간 살았던 희귀종 거북을 비롯해 포유류와 조류 등 희귀 동물 박제와 골격 표본 500여 점이 모여 있다. 수장고는 벌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창문이 없고, 온습도 유지를 위해 천장과 벽을 특수 재질로 건축했다.

-곰들인 박제가 수장고에 있어 아쉽진 않나.

“동물원 곳곳에 교육 목적으로 박제를 전시하기도 하고 외부 강연할 때 가져가 보여주기도 한다. 수장고에 있는 표본들 도 나중에 전시할 가능성은 있다.”

-잘 된 박제는 어떤 박제인가.

“진짜 살아 있는 것처럼 생김새나 해부학적 형태가 맞아야 한다. 동세도 자연스러우면 좋다. 외국에선 사냥꾼이 박제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포즈를 말해준다. 동물원이나 박물관 박제사는 그런 주문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 주문대로 포즈를 정할 수 있다. 가죽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가리는 자세를 택하기도 하지만, 가죽 문제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역동적이고 동세가 있는 포즈를 선호하는 편이다. 동물의 행동생태학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도 좋다. 수달의 경우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사람처럼 앉아 있는 사진이 많아서 박제에 반영했다.”

-가장 애착이 가는 박제는 무엇인지.

“아무래도 시베리아 호랑이가 스케일도 크고 고생을 많이 해서 기억에 남는다. 2018년에 만든 회색 늑대도 맘에 든다. 동세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개과 동물을 좋아해서 더 애착이 간다.”

-외국에선 반려동물 박제도 많이 한다던데.

“나 역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웠지만, 반려동물 박제는 추천하지 않는다. 새나 파충류가 아닌 개, 고양이는 특히 그렇다. 박제사는 반려동물에 대해 평생 그 동물을 키운

사람만큼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이 죽은 직후엔 박제를 해서라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보내주고 싶어지지 않을까.”

-파충류 박제는 좀 다른가.

“뱀이나 악어는 박제도 하지만 털이 없기 때문에 본을 떠서 모형 제작을 많이 한다. 박제만큼 결과물이 잘 나온다. 양서류, 파충류 박제는 색칠을 잘하는 게 관건이다. 나는 포유류와 조류에 주력하지만 아주 가끔 양서류나 파충류도 다룬다.”

-박제사로서 직업병이 있나.

“가장 가까운 참고자료인 반려동물을 보면 꼭 만져보고 살펴보게 된다. 재규어를 박제할 때도 틈만 나면 키우는 고양이의 귀와 입술을 만지면서 관찰했다.”

윤 동문은 ‘Wildlife Artist’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에서 야생 동물 박제, 그림, 조각 등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다. 프로필에는 다음에 박제할 동물인 설표 사진을 걸어놨다.

블로그에 친절한 설명과 함께 박제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박제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풀려는 목적도 없지 않다. 국립생물자원관이 1910년에 박제된 호랑이의 살점을 떼어 한국 호랑이의 DNA를 분석하는데 성공한 일이 있다. 과거에 동물을 가두는 것이 아닌 미래에 그 가치를 전해주는 박제의 순기능이다.

-아직은 박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가 많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박제가 잔인해 보일 수 있음을 이해는 한다. 과거의 박제에서 생긴 고정관념 탓에 부자연스럽고 흉측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박제 기술이 발전해서 현대의 박제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고 실체를 잘 고증하고 있다. 희귀 멸종 동물의 종 보존과 연구에 활용되고, 동물 보호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는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더 나은 박제사가 되기 위해 하는 노력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최신 재료나 테크닉을 익히려 한다. 외국 사이트도 많이 보고, 동물 근골격계 해부학 공부도 꾸준히 한다. 사진 자료를 많이 모으려고 동물원을 돌아다니면서 동물 사진을 찍고 있다.”

-국제 대회에도 나가고 싶다고.

“미국과 유럽에서 1-2년에 한 번 큰 박제대회가 열린다. 전 세계 박제사들이 자기 작품을 출품하고 교류하는 대회다. 동물의 크기와 종류 등을 나눠 심사한다. 칠면조의 경우 입을 벌렸는지, 다물었는지로도 나뉜다. 여력이 된다면 202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출품작을 미리 온라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번에 만든 호랑이는 출품이 어렵다. 새로운 동물을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윤 동문의 박제 작품 중 먹이를 먹는 회색 늑대, 오른쪽은 힘차게 뛰어오르는 시베리아 호랑이 박제. 사진=서울대공원



모교와 동창회에 바란다

‘모교와 동창회에 바란다’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동창회 또는 모교에 바라는 점을 200자 원고지 6매 분량(10pt, A4 1장 내)으로 적어 성함, 학과, 학번,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마감은 매월 5일이며, 이메일(news@snua.or.kr), 우편 또는 팩스(02-886-2218)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동문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연구공원 본관 416호

동문 자녀 중매 어려울까요?

서안희(간호63-67) 동문(미국 거주)



두 아들을 생각하면 미국에서 산 지도 오래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공부하며 자랐으니 말이다. 큰아들은 의과대학, 작은아들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둘 다 레지던트 과정에 있다.

이제는 구수감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서 이 글을 쓰게 됐다. 혹시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동문이 있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동문들 가운데서 결혼 연령에 있는 아들, 딸을 서로 연락해주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이 없을까?

졸업앨범 구하고 싶어요

한동훈(농경제83-87) 혼스컴퍼니 대표



총동창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제 또래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 짐작합니다만 우리가 대학을 다

닐 때는 친구나 선후배 가운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학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졸업 사진과 졸업앨범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와 나중에 언제 보겠냐는 푸념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하면서 사진을 제대로 찍지 않거나 앨범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마땅한 양복은 없어도 아버님이 입으시던 철에 안 어울리는 두꺼운 동복 재킷만 걸치고 졸업사진을 찍었지만 차마 졸업앨범을 사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쇠침해 신청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졸업앨범이 없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의 앨범 중 대학교 앨범을 보니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때 사줬으면 지금이라도 친구들 촌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며 추억을 되살릴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총동창회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서관이나 기록실 등에 보관되어 있는 졸업앨범을 스캔 등 디지털화해서 졸업생 중 지금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렴하게 디지털 졸업앨범을 판매했으면 합니다. 후배 장학기금으로 연계해도 좋구요. 졸업앨범의 디지털앨범화와 회람 졸업생들에게 판매! 부탁 드립니다.

졸업생 이어 주는 역할 기대

안수경(공예85-89) 작가·한울회 홍보이사



〈1〉“언니, 언니네 동문들 단체체팅방 총동창회에서 만들어 줬었지? 300명 된다고 했나?”

“졸업 30주년 하면서 각 단과대 대표를 만나고 그 대표들이 각 학과대표 만나서 2013년 처음 50~70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500여명, 각 동호회 방도 100~200명.”

〈2〉“친구야~ 너희 동문들이 모이게 된

게 총동창회에서 연결해 줘서 생긴 거라고 했지?”

“우리는 원래 25주년 재상봉이라고 해서 졸업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에 동문 재상봉 행사가 총동창회 지원으로 있어 왔어. 그때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당 학번들이 모이면서 점점 연락하는 규모가 커지게 된 거지.”

첫번째 대화는 우리 동네에서 알게 된 K 대학교 졸업생 A언니와의 대화이고 두 번째 대화는 작년에 알게 되어 함께 산행을 같이 한 Y대학교 졸업생 B친구와의 대화이다. 3~4년 전쯤 A언니와 대화를 하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니! 우리 나이(50대)에 “다시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그 언니의 즐거움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언니는 여행반 친구들을 따라 여행을 다녔고 합창반 모임을 매주 나가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나는 당시 2011년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모든 사회적 활동을 접고 은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활동들이 멋져 보일 수밖에 없었다. B친구네도 부러웠다. 본인 출신학교 총동창회의 행사로 인해 25년 만에 다시 모이게 되고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면서 그 친구는 등산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졸업 후 25년, 30년은 우리가 50대일 때이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같을 수



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는 시간도 생긴다. 이런 시기에 누군가가 나서서 동창들을 이어주고 우리의 젊음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 준다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여백의 시간이 좀 더 충만해지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출신은 모래알’이라는 말이 향간에 있듯이 우리는 동문 간의 연대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면이 있다. 이는 선비정신을 떠받드는 서울대인의 결이 남다른 성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학연, 지연, 혈연에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각 사회에 리더 역할을 하는 서울대인들을 못 모이게 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모범적이어야 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소소한 행복마저 갖지 못해야 할까? 학연, 지연, 혈연은 사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우리는 살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여전히 조심하고 금기시하며 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소확행’은 낮은 사람과 함께 해서 이루기는 쉽지 않다.

사실 나도 우리 총동창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지가 얼마 안 된다. 십수년 전 총동창회 신년하례식에 한 번 참석해 보니 내 또래의 졸업생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선배님들뿐이었다. 나는 아직 참석하면 안 될 것 같은 세대차이를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한다. 총동창회의 그동안의 노력과 업적과 성과에도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 총동창회에서 졸업한 동문을 이어주는 데 도움닫기 역할도 해주면 좋겠다.

권위의식 없는 회장단 되길

설균태(행대원88-90) 민주평통 상임위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총회가 연기되고 따라서 총동창회 28기 회장단 출범도 늦어져 모든 동문들이 느꼈을 심정과 같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행히 28대 회장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이희범 동문을 추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28기 동창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이희범 회장은 관계, 경제계, 산업계를 두루 섭렵하여 탁월한 식견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게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친화력을 겸비한 리더십을 보유한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총동창회 출범 이후 김재순, 최주호 회장을 비롯한 임광수, 26대 서정화 회장, 27대 신수정 회장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경륜을 쌓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동창회를 이끌면서 오늘날 같이 동창회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창회 운영에 불미스런 잡음이 있었던 적이 있어 안타깝기도 하여 동창회 화합 차원에서 주마가편(走馬加鞭) 격으로 참고 삼아 간단한 도움말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새로 추대된 이희범 회장께서도 동호회 활성화와 동창 간 화합을 강조하시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

지금까지 신년하례, 정기총회, 흠커밍데이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느낀 소감인데 회장을 비롯한 집행간부들과 참석한 일반 회원 간에 다소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회장단은 단상에 앉아 있다가 의례적인 축사나 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다소 권위의식이 느껴졌고 참석한 일반회원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정감을 느낄 수 없었다. 회장단이 등산회나 골프 등 동호회에 적극 동참해서 막걸리라도 한 잔 함께 했으면 좋겠다. 특히 흠커밍데이 행사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여러 동문들이 즐겁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들여서 경품 추첨 같은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동창회를 하나씩 하나씩 부드럽게 풀어가다 보면 차츰 차츰 전체적인 단합과 화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알쓸신잡’ 이야깃거리 많았으면

김 광(조선해양공학91-95) 김광상제도 설립자



‘총동창회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투고를 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몇 자 적어 보내 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총동창회에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총동창신문에 바라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미국과 중국 등 몇몇 국가들에서 포스트(Post)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제한적·지역적으로 시행을 준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교와 총동창회도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와 계획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민족이 위기를 맞는 순간에 앞장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교의 전통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적·민족적 어젠다의 연구와 설정 그리고 제안과 관련된 거대한 주제 못지않게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 개인의 삶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어젠다와 관련된 부분에 노력과 신경을 쓰는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랜 동안 자택 격리와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일상에서의 방역 조치들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소소한 생활의 리듬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과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과 신경에 총동창신문이 일부 지면을 할애한다면 그것은 모교의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물론 졸업생들에게 결코 적지 않은 의미로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로 총동창신문에 바라는 것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총동창신문의 지면을 일부 할애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총동창회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것도 그러한 것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안하고 싶은 외국어 또는 중요한 시사 용어들을 소개하는 지면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에 관련해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한다면 비록 한 달에 한 번 받아보는 총동창신문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재미를 한 달에 한번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생의 한 명으로서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노력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모든 이의 안식처가 되어주길

강진욱(의학94-00) 서울플러스이비인후과 원장



봅니다. 고난이 있고 고민도 있고 어지러운 일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단의

싹들과 이희범 총동창회장님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나무농원을 좋아합니다. 나무를 구경하고 고르고 마당에 심기도 합니다. 씨앗들과 모종들도 좋아합니다. 각종 꽃이며 채소, 과일 등을 텃밭에 심고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우고 하면서 자라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봄 농사의 시작은 늘 설렙니다. 그리고 그 설렙은 1년의 텃밭농사가 끝나는 마지막 수확을 거둘 때 보람과 즐거움으로 바뀌곤 합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 총동창회가 큰 봄의 농원 같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된 큰 느티나무 같은 분들도 계시고 방금 물을 뿌려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고추 모종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자리를 잡아 아름다운 수세를 보여주는 수사해당 같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싹을 틔워서 초록색 떡잎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대총동창회는 큰 열린 농원이길 소망합니다. ‘이런 곳이 있었네’ 하고 쭈뼛거리며 들어오더라도 어서 오시라고 반겨주셔서 들어온 이가 금세 여색함이 사라지고 천천히 둘러볼 수 있고, 그곳에서 수많은 푸르고 싱싱한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하고 알아가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장님과 회장단님은 그 농원의 농장지기이시자 그 농장지기를 도와 농원을 가꾸는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는 당연히 있을 줄로 압니다. 나무를 만지고 싹을 틔우고 바람이 불면 바람가림막을 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물고랑을 내는 일처럼 때론 고되고 때론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서울대총동창회란 아주 크고 자랑스러운 곳에 회원 누구라도 들어와서 ‘와’ 하고 감탄사를 자아내기도 하고 희죽 웃기도 하고 눈이 반짝거리면서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곳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대총동창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고 잠깐이라도 걷다가 나가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힘으로 일하다가, 잠깐 숨을 돌릴 때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서울대총동창회라는 푸르름에 물들어 웃을 수 있는 그런 동창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곧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겠죠. 그 가을쯤 이번 회장님 이하 집행부 분들께서, 그리고 수많은 자랑스러운 동문 분들이 그래도 한 해 농원일 잘했다 즐거웠다 뿌듯하게 서로를 웃으며 격려하고 추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출소서 꺼내준 이수성 교수 눈에 선해

“약자의 눈으로 세상 바꾸고 싶다”

박 진(법학74-78)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통합당 2명뿐인 서울권 4선 의원
“한일관계 회복에 힘 쏟겠다”

박 진(법학74-78) 동문이 8년간 원외에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치의학84-90) 의원을 꺾고 돌아왔다. 그가 3선을 역임한 고향 종로가 아닌 강남(을)에서다. 권영세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엔 두 명뿐인 서울권 4선 중진이다.

박 동문은 20세에 외무고시에 합격해 중앙청에서 사무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해군 장교 복무를 마치고 26세에는 유학길에 올라 미국, 영국, 일본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영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36세에 당시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돼 5년간 대통령 공보 비서관, 정부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46세에 고향인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18대 국회에서는 통일외교안보통상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외교 전문가로 당내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정치에 실망과 한계를 느껴 19대 총선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력의 세계를 떠나 바깥에서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박 진 동문은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지난 8년간 넓은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대학 강단에서 석좌교수로 청년들을 가르치며 그들과 젊은 세대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해 토론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를 방문하며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젊은이들과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치 혁신과 국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을 새로운 정치를 위해 쏟겠습니다.”

박 진 동문은 서울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역할이 크다. 미래통합당이 당명 그대로 정말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당이 될 수 있을 까.

박 동문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미래통합당



은 아날로그 DNA를 디지털 DNA로 혁신적으로 바꾸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합당은 낡은 보수, 썩어 보수 정당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2030 젊은 디지털 세대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들과 적극 소통하며, 이를 정책 활동에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부동산규제, 세금폭탄, 외교고립, 남북관계 실패 등 실책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동문은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표류하는 한미동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중국에 대해서는 의연한 자주외교를 하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어니언스의 편지가 유행하던 시절 74학번으로 1학년 교양 과정을 태릉에서 보냈고, 2학년부턴 신림동 관악캠퍼스로 다녔다. 관악 1세대인 셈이다. 1학년 때는 서울 공대 앞의 ‘쌍승당구장’, ‘대성식당’의 단골이었고 2학년 때는 관악구청 앞 ‘한잔집’에서 두부김치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사회계열 친구들과 시국을 논하곤 했다.

긴급조치 9호 반대 데모를 하다가 관악파출소에 붙잡혀 있을 때, 당시 형벌을 가르쳤던 이수성 교수가 와서 구해준 것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는 “교수님이 담당 경찰에게 허리 굽혀 깎듯이 인사하며 우리를 빼 주시고 저녁에 짜장면까지 사주셨다”며 “용기를 잃지 말라며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고 했다.

이수성 교수 외에 국제법을 가르친 이한기 교수, 주례를 서주신 배재식 교수, 대학원 조교로 모신 박충현 교수, 보험 해상법을 가르친 송상현 교수를 잊을 수 없는 은사로 꼽았다.

박 동문은 조운희(기약75-79) 동문과 캠퍼스커플이다. 동창회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옥스퍼드대 한국동문회 회장으로 맡았다. 박 동문은 총동창회에 대해 조언을 부탁하자 “산업자원부 장관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지내신 이희범 신임 회장님은 동창회장으로 최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새롭게 진용을 짜고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창회가 일취월장 꾸준히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 동문은 체력 관리를 위해 등산을 한다. 주말에 대모산 자락을 오르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김민석(사회82-8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선 같은 3선...18년 만에 복귀
아크로폴리스, 김채운 교수 떠올라

“약자의 눈으로, 미래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 중심의 포용 사회를 열어 가겠습니다.”

386세대의 기수 김민석(사회82-89) 동문이 국회 의원 임기를 시작하며 밝힌 포부다. 김 동문은 2002년 서울시장 낙선 후 18년 만에 정치 고향 영등포에서 당선돼 정계에 복귀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 만 28살의 나이로 제1야당 공천을 받아, 민주자유당 나웅배 후보에게 불과 200표 차로 낙선하면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15, 16대 국회 의원에 연이어 당선되며 정치권과 언론에서 차세대 대선 주자로 손꼽는 데 이견이 없었다. 200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지도자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동문은 여세를 몰아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패했다. 그해 16대 대선을 기점으로 그의 정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보 단일화를 목표로 새천년민주당을 나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캠프로 들어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적 선택이었고,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실제 정권 재창출을 이뤄 당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옥의 티처럼 생겼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 재입성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아픔도 겪었다.

김 동문은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묵묵히 견디는 인내심이 좀 생겼고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날을 복기해 보면 현실정치를 이뤄가는 데 정치공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란 깨달음이 큼니다. 이번 선거 때 코로나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출퇴근 인사를 하면서 울컥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분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볼 때 그 전보다 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 지난 세월이 준 가르침입니다.”

18년 만의 정계 복귀지만 여전히 김 동문은 조선의 이미지가 강하다. 훈훈한 인상에 청년 시절 일찍 정계에 입문한 탓일까. 선거 당시 구호도 ‘돌아온 정치신인’이었다. 김 동문은 “실제 마음가짐도 조선 의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정치적이다’란 수사가 뭐가 순수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선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20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마음으로는, 국민에게 과거 정치적 경험이나 경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길 바라고 거기에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 동문은 대학 4학년 때인 1985년 모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전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1980년대 초 학생 운동을 주도했다.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및 삼민투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장소로 그는 “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와 자하연이 생각난다”고 했다. 고 김채운 교수님의 소탈한 모습도 떠오른다고 했다. 코로나 19 사태 등이 겹쳐 오랜 공백상태에 있는 총학생회를 향해 “학생사회 내부의 건강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민석 동문이 18년의 시간을 버티며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유는 뭘까.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걸까. 마지막으로 물었다.

“동년배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 문명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게 보입니다. 이럴 때 정치가 먼저 방향을 잡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도와야 합니다. 크게, 멀리 보고 포용 국가의 비전과 모델을 만드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김 동문의 이메일 아이디는 newmskim2030이다. 정치를 시작할 때, 2030년쯤이면 우리나라가 통일된 선진국이 된 것을 보며 은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은 것이다. 2030년에서 10년을 남겨두고 복귀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된다. 김남주기자

개인의 도약, 기업의 도약, 산업의 도약 저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기업통신 전문컨설팅 베가네트웍스

T. 070-5223-0873 F. 0505-300-6155 E. vegahj@veganet.co.kr

“국회의원 3선까지만 해도 충분”

서범수(농경제82-86)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서병수 부산 진구갑 의원 동생
해수부 사무관서 경찰로 전직 눈길

지난 4·15 총선 때 형제가 나란히 국회 입성을 확정지어 화제가 된 당선인이 있다. 서범수(농경제82-86) 동문과 그의 11살 터울 형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 이 그 주인공. 16·17·18·19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5선 의원이 된 형과 달리 서범수 동문은 2019년 정계에 뛰어든 초선 국회의원이다. 해양수산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3년 만에 경찰로 전직, 25년 동안 봉직한 이력으로도 눈길을 끈다. 울산 울주군에서 당선된 서범수 동문을 지난 6월 1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같은 회기에 형제 국회의원이 탄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보면 정말 큰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둘 중 한 명이라도 잘못하면 함께 비판을 받게 될 테니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고 형님과 얘기 나누기도 했죠. 뽑아주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같은 당에 같은 집안의 국회의원. 언뜻 생각하면 정치적 지향점도 비슷할 것 같지만, 서범수 동문은 ‘서범수 의원’으로서의 자기 관점이 확실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만큼 경륜이나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일례로 지난 총선 때 당을 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들 수 있다. 서범수 의원을 포함한 중진들은 대체로 가능한 빨리 복당시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 동문은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탈당을 강행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동문은 또 “국민을 보고 정치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한국 정치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많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 선거 때만 반짝 국민에게 다가갈 뿐이에요. 때문에 저는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부터 당선 이후 의원으로서 봉직하는 동안에도 국민의 영향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형 공천제’와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및 ‘국민소환제’를 추진하려고 해요. 선거 전부터 국민이 후보를 선택하고, 임기가 남았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면, 국민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 동문은 또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병수 의원이 이미 5선인데 그런 형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4년씩 3번, 도합 12년이면 정치적 신념을 펼쳐 보이기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을 제한하듯 국회에도 그런 규정을 둔다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도 되고 국회



의원의 직업화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론과는 거리가 있지만,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진보정당인 정의당 쪽에서 내세우는 법안에 공감을 표명한 셈이다.

“저는 소위 ‘똥파리’라고 불렸던 서울대 82학번 세대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도 고교 동문이나 과 선배의 권유로 각종 사회과학 독서 연구회에 활발히 참석했죠. 보수적인 집안의 영향으로 운동에 적극 동참하진 못했지만, ‘우상과 이성’,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 소위 이념 서적을 탐독하기도 했어요. 당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권위주의의 타파는 많은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였고,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었죠. 그 시절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면서도 구체적인 안전에 관해선 비교적 열린 시각과 유연성을 갖게 됐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가 경찰로 전직할 때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경찰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께 대한 존경과 동경심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서 동문은 현장에 대한 감정을 전직의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책상 앞에서 펜대 굴리는 것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며 일하고 싶었습니다.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근무했어요. 2015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국적으로 4,62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만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았는데, 경찰 입장에서 살인사건은 위중하게 여기는 반면 교통 사망사고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살인사건이나 교통 사망사고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에 저는 교통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많은 지점을 24시간 단속하는 등 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결과 울산이 지난해 해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전국 1위를 차지했죠. 국회의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 ‘우문현답’의 정신을 되새기겠습니다.”

나경태 기자

“4년치 일 1년 안에 해내겠다”

장철민(정치02-0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전 원내대표 수석보좌관 거쳐
비수도권 유일 30대·대전 최연소 당선

“어리바리하면 안 되죠. 4년 금방입니다.”
‘초선답지 않다’는 소문 그대로였다. 만 36세에 대전 동구에서 첫 금배지를 단 장철민(정치02-06)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국회의원이자 학부 출신 21대 동문 의원 중 최연소인 그의 이력은 단순하되 깊다. 정치를 전공하고 7년 반 동안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며 오로지 정치에서 뼈가 굵었다. 요즘 드문 여의도 엘리트 코스다. “4년치 일을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여기 있다.

5월 28일 개원 준비가 한창인 국회에서 그를 만났다. 백팩을 메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허물없이 인사하는 모습이 쪽 이곳에서 일한 이다웠다. “어려서부터 ‘역사의 현장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전공 선택에 영향을 줬죠. 학생운동이 약해진 세대다 보니 저도 재학시절 학생정치는 하지 않고 학회와 사회대 ‘한길반(사회복지학과 과반)’ 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다 정치를 직업 삼겠다고 마음먹은 후엔 국회에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다녔어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대학생 명예보좌관 등을 거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 보좌진 공채에 합격해 꿈을 이뤘다. 19대 홍영표 의원실에 7급 비서로 합류, ‘일 잘한다’ 소리 들으며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홍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자 2급 정책조정실장까지 고속 승진했다. 각종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변죽이는 순간을 만들어낸 공신이다. 184cm의 훗칠한 키, 위키하우인 면모에 드라마 ‘보좌관’ 주연 이정재의 실사판으로도 불렸다.

출마를 결심한 것은 “결정하고 책임지는 선수로 뛰고 싶어서”였다. 청년 정치에 대한 목마름도 컸다. 현실 정치의 복판에서 일찌감치 정부 감각을 몸에 익힌 자신이 앞장서 보여줄 것이 있다고 믿었다. “정치에서 스펙 쌓기가 취준생 스펙 쌓기만큼 어렵습니다(웃음). 당에서 보좌진을 했더라도 외부에서 스펙을 만들어 와야 정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저처럼 당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실패해도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대전에서 나고 자라 서대전고를 졸업한 그는 보수세가 강한 동구로 향해 낙후된 원도심에 대전의료원 설립, 혁신도시 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공약했다. 험지라고 했지만 참모로 몇 번의 선거를 겪어 봐서인지 흔들리지 않았다. 선거운동 할 때 얼굴이 하도 밝아 당에서 “체질 같다”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다. 정부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아는 ‘준비된 신인’임을 어필했고 홍영표 의원이 “대한민국

국가예산 500조를 다뤄본 유일한 30대”라며 힘을 보탰다. ‘대전에서 인물 나왔다’며 승리를 안겨준 주민들에게 만아들처럼, 친구처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첫 출마에 으레 겪는 배우자의 반대도 없었다. 동갑내기 동기 이시은(정치02-08) 동문과 캠퍼스 커플로 결혼해 외동딸을 뒀다. 이 동문도 정치 공부를 계속해 최근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물 두 살부터 9년 연애하고 결혼했으니 ‘장철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그만큼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정치 똑바로 안 하면 다음에 선거운동 안 해준다’고 말하던걸요.”

그는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는 지방청년의 대표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안다”고 했다. 마음 속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평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지역청년지원법’을 구상 중이다. 당에서는 청년 정치의 씨앗을 심는 책무를 맡을 듯하다. “처음부터 빨리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국회에 온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려면 입법부가 나아져야 하고, 그러려면 정당이 발전해야 하는데, 평생을 정당 발전에 바쳐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죠. 사람을 키우는 게 정당 발전에 중요하기에 4년뿐만 아니라 평생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을 합니다. 마침당 사정이 좋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첫 당선의 기쁨도 잠시, 차분하게 초심을 되새긴다. “처음 국회에서 일하며 가장 즐거웠던 게 있어요. 정치란 게 기존 사회질서와 거꾸로구나, 모두 센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셀 때 정치하는 사람만은 반대로 할 수 있구나. 장관에게 당당히 지적하고 동네 범부의 말은 경청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정치인으로 빛나는 곳을 더 빛내는 게 아닌 취약점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회의 균형을 맞춰가고 싶습니다.”

장 동문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1년 후배인 황두영 동문이 보좌관으로 그와 함께 뛰는

박수진 기자





30여 년 외길을 걸어온 기업

(주)한맥은 온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주)한맥은 30여 년전통의 냉장·냉동 전문 식품회사로 햄버거류, 돈까스류, 피자류, 냉동식품류, 소스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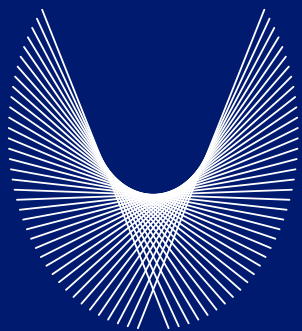






(주)한맥

대표전화 : 031-575-8833 홈페이지 : www.hanmacfood.co.kr / 한맥몰 : www.hanmacmall.com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SITY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든든한기부 모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든든한기부

미
래
가
있
는

가
치
가
있
는

연
구
를
위
한

든든한기부

“기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듣고, 보고, 느낌으로서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기부가 가치 있는 투자로 서울대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과 과학 영재를 육성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故 정석규,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48입)

연구기반 조성기금

-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기금
- 창의융합형 실험실습기반 기금
- 첨단연구장비 인프라구축 기금

연구기금

- 세계선도중점학과(부) 기금
-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기금
-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기금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받으십니다.



60동 본부 영예의 전당



기부자 초청 음악회



소그룹 맞춤형 캠퍼스투어

구 분	내 용	1백만원 이상 SNU Sponsor	1천만원 이상 SNU Sponsor	1억원 이상 SNU Honor	10억원 이상 SNU Gold Honor	50억원 이상 SNU President's Honor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패	감사장	●	●	●	●
	기념품 · 간행물 · 달력 · 생일카드	●	●	●	●	●
특별초청	입학식 · 개교기념식				●	●
	총장실 초청 감사패 전달식			●	●	●
	장학금수여식 · 캠퍼스투어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 전시회		●	●	●	●
명예헌정	특별기금 관리 · 기부자리포트			●	●	●
	기금명칭 부여			●	●	●
	명예의 전당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웨딩홀 이용(호암 및 연구공원)			●	●	●
	포스코 스포츠센터 할인			●	●	●
	서울대학교 프로그램 감면			●	●	●
	생협 기념품점 및 호암교수회관 할인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기한	기한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등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기한	평생	평생
	의전서비스			기한	10년	평생
	근조화환			●	●	●
	근조기		●	●	●	●

※예우는 납입액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1666-2930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든든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DDH20-06]

성명: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입학년도(기수): _____

약정금액: ☐ 정기후원 매월 _____ 원

☐ 일시후원 일금 _____ 원

신임 대학원동창회장 인터뷰

“‘힐링여행’으로 단합 자리 만들겠다”

보건대학원동창회장

권혁한

보대원75-77

애원시니어대학 교수·KN바이오 회장

지난해 12월 열린 보건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권혁한(75-77) 애원시니어대학 건강학 교수 겸 KN바이오 회장이 제16대 동창회장에 선출됐다. 권혁한 신임 회장은 ‘선배 존중, 후배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후배, 동기 간 만남이 기다려지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권 신임 회장을 지난 5월 28일 서울 길동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보건대학원동창회는 1960년 졸업하신 1회 선배들도 동창회 모임에 적극 참석하십니다. 동창회 운영과 관련해 뜻깊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은 물론 학문적으로도 귀감이 되는 존경스러운 선배들이세요. 원로 선배들부터 젊은 후배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대단합을 이루는 게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60년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니까 후배들에겐 선배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서먹함을 해소하면 동창회 발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권 회장은 대단합의 계기를 만들고자 ‘힐링여행’을 기획 중이다. 박사 출신 동문 모임인 ‘박사회’ 회원들과 보건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 보건사회복지정책과정 등 보건대학원 소속 3개 특별과정 출신 동문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 회장은 각 동창회 회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당초 올봄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가을로 미뤄졌다. 미뤄진 만큼 더 알찬 여행이 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권 회장은 보건대학원동창회 단합 요인 중 하나로 재학생 취업 지원을 꼽았다. 모교 출신의 우수함은 워낙 정평이 나 있어 보통 청년들처럼 구직난을 겪진 않지만, 적재적소에 취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권 회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네트워크와 상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후배들은 희망 분야 취업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선배들의 취업 상담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확대, 취업 시즌뿐 아니라 재학 중에도 수시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젊은 동문을 유입시키기 위한 모임뿐 아니라 기존 동문들이 동창회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진 재학생 장학기금 마련에 동창회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했다면, 앞으로 동문들에게 일정 부분 할애할 생

각이에요. 동창회는 재력 있는 일부 동문 몇 사람의 통 큰 협찬금보단 많은 동문들의 십시일반 참여로 운영되는 것이 뜻있고 보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창회에 참여하면 뭔가 도움이 되고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동문들이 가까이 회비를 내주실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나 혜택을 늘리고 다시 회비납부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권 회장은 또 동문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젊은 동문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선배 동문을 발굴,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후배 간 친목 증진과 함께 동창회 결속력을 높일 방침이니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일본의 국립 시네마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권 회장은 대한오존협회 회장, 생활체육 전국불링연합회 회장 등 여러 단체의 수장을 지냈으며, 임국한 제14대 동창회장 재임 때부터 감사로서 동창회 실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준비된 동창회장’이다. KN바이오는 권 회장이 취임한 특허를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특허청의 허가를 받아 콩 가공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취미로 즐기는 볼링과 낚시에 조예가 깊다.

모교 보건대학원은 1959년 설립됐으며 2019년까지 석사 3,766명, 박사 378명, 특별과정 수료생 3,000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12월엔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10월엔 박사회와 특별과정 동창회 모두가 함께하는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나경태 기자

의대동창회

동창회 합춘회관 사용권 모교 본부에 귀속

의과대학동창회(회장 임수흡)의 합춘회관 사용권이 지난 4월 4일부로 모교 본부에 넘어갔다.

합춘회관은 연건캠퍼스 인접 학교 부지에 모교 의대 동문들이 39억7,500여 만원의 기금을 모아 건립한 동창회관이다. 의대동창회는 2002년 완공 직후 모교로부터 17년 2개월 동안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연 4억여 원의 임대수익을 창출, 모교 발전과 동문 복지를 위한 사업에 활용해 왔다.

의대동창회는 1년 전부터 합춘회관의 특수목적사업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모교 본부 측에 영구 무상임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교 측은 동창

회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합춘회관의 부지가 국유재산인 만큼 무상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18년 3월 무상사용 종료 건물에 대한 학교 반환 원칙을 준수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합춘회관이 의과대학과 인접해 있는 만큼 6월부터 2년 동안 모교 의대에 임대관리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의대동창회의 기부사업 취지 및 기존 사용현황,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대에 한시적으로 관리를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의대동창회는 “모교 본부와 합의 하에 7층 동창회 사무실은 계속 사용할 수



의과대학동창회 합춘회관 전경.

있게 됐지만, 합춘회관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1층 메모리얼홀과 3층 가전홀 또한 종전과 같이 동창회 행사와 동문들의 친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의대에 정식으로 요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창 골프선수단

이희범 회장, 오세정 총장 참가



지난 5월 31일 열린 서울대 동창 골프선수단 5월 정례대회에 이희범 본회 회장, 오세정 모교 총장, 김종섭 회장, 손길승 명예회장, 각 단과대학동창회 대표 선수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모교 동창 골프선수단(회장 김종섭)이 지난 5월 31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라비에벨CC에서 정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종섭(사회사업66-70) 회장, 손길승(상학59-63)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희범(전자67-71) 본회 회장, 오세정(물리71-75) 모교 총장과 각 단과대학동창회 대표 선수 3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 결과, 장상범(의학89-93) 동문이 73타로 남자부 우승을, 박혜선(치의학95-99)·김정준(치의학04-09) 동문이 80타로 여자부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단장 겸 총무를 맡고 있는 송우엽(체육교육79-83) 동문은 260미터를 기록해 롱기스트에 올랐다. 송 동문은 감독으로서 허영성(치의학84-90)·한송이(치의학89-95) 동문과 함께 2018년 ‘제9회 대학동문골프최강전’에 출전해 준우승을 거두고 삼금 전액을 재단법인 관악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적 있다.

서울대 동창 골프선수단은 우수한 골프 실력과 단정한 성품을 갖춘 모교 동문들이 골프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11월 창단했다.

법대동창회

자랑스러운 법대인 김영무·윤증현·김진환·신희택



지난 5월 28일 법대동창회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현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조대연 회장,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김진환·윤증현·신희택 수상자, 김영무 동문 대리 수상 여훈구 동문, 장승화 모교 법전원장.

38대 우창록 회장 선임도



법과대학·대학원동창회(회장 조대연)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현창식을 개최했다.

조대연(법학69-73) 회장, 장승화(사법81-85)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범(전자67-71) 본회 회장 등 동문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영무(법학60-64)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증현(행정65-69) 윤 경제연구소 대표, 김진환(법학67-71)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신희택(법학71-7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4명이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무 동문은 국제 로펌 ‘베이커 앤 맥킨지’ 시카고 본사와 일본 도쿄 사무소를 오가며 국제 변호사로 활약했다. 실무 경험과 선진 로펌 경영 노하우를 밑바탕으로 197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김앤장은 국내에서 국제 전문 로펌시대를 열었으며 걸출한 법률 엘리트를 배출해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AMP동창회

이경수 신임 회장 선출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회장 구자준)가 지난 5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볼룸에서 2020 정기총회 및 제20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구자준(45기) 회장, 손경식(법학57-61 23기·본회 고문) 명예회장 등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이경수(약학

윤증현 동문은 2004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으로 부임하여 18년 동안 표류하던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를 해결, 보험 산업 발전의 토대를 강화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듬해 2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입각해 경제회복을 이끌었고, G20 정상회의를 주관했다.

김진환 동문은 UN 산하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 대통령 법률비서관,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봉직, 국법질서 확립과 국제협력에 공헌했다. 2004년 퇴임 후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와 공증시스템의 합리화에 기여했다. 2016년부터 2년간 제36대 법대동창회장으로 봉사했다.

신희택 동문은 예일대 로스쿨에서 국제투자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 로펌 성장과 국제거래법 실무 발전에 기여해 오다 2007년 모교 로스쿨 출범과 함께 교수에 부임했다. 한국인 최초로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 사건의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를 통해 우창록(법학70-74·사진)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을 제38대 동창회장으로 선임했다. 우창록 신임 회장은 ‘함께 하는 모임, 가보고 싶은 동창회’를 슬로건으로 동창회 행사와 참여 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했다.

66-70 28기·사진) 코스맥스 회장이 제25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경수 신임 회장은 1992년에 한국미로토를 설립하고 1994년 코스맥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전문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기업으로 자사의 브랜드가 아닌 고객의 브랜드로 판매할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로레알·랑콤·바이체릴 등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6년 1억 달러 수출의 탑, 2018년 UN 글로벌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미대동창회

여명학교 미술교육 지원

미술대학동창회(회장 권영걸)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을 실시한다. 여명학교는 2004년 설립된 고등학교 과정의 사립 대안학교로 탈북 청소년과 탈북 주민 자녀들을 교육한다.

미대동창회는 지난 4월 8일 여명학교에

서 미술교육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회를 열었으며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특강형식으로 벽화 제작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모교 미대 동문들과 탈북 청소년 학생들이 공동으로 벽화를 제작해 남북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동문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회를 열어 여명학교 후원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순테니스회

이창건 류연수 동문 A팀 1위

이순테니스회(회장 류연수)가 지난 5월 23일 관악캠퍼스 경영대학 인근 테니스코트에서 제81회 대회를 개최했다. 이창건(전기49-54)·차재호(심리52-56)·이은방(약학55-59)·홍명희(법학55-59)·강신욱(법학56-61)·양철학(화학59-65)·한영성(천문기상59-63)·류태형(식물60-65)·노영식(체육교육65-69)·류연수(잠사67-71)·신방호(경제67-71)·최현구(화학공



학67-71)·오승렬(금속69-73)·최병갑(경제74-81)·장광훈(자원74-78) 동문 등 15명이 함께 땀 흘리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경기는 A, B팀으로 나뉘 진행됐으며 이창건·류연수 동문 조가 A팀 1위를, 최현구·장광훈 동문 조가 B팀 1위를 차지했다.

참가문의: 02-879-8214

모교에 총렬탑 세우자

특별기고



신동소

임학53-57
모교 농생대 명예교수
소년학도병 6·25 참전유공자

우리가 여저 잊으랴. 6·25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가 70주년이 되었다. 이 전쟁은 민족의 비극이었으며 나라의 진운이 걸린 전쟁이었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많은 국민의 살상과 애국지사의 납치, 전쟁고아, 굶주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남겨 그 상흔이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이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60여 만명의 국민과 국군 사상자, 참전 UN군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17만8,600여 명이 전사하였다. 삼가 명복을 빈다.

총렬탑은 애국의 교육장

1945년 광복을 맞이해 부흥을 겨누며 시간도 없이 북한군이 불시에 38선을 넘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 국가의 운명이 풍전 등화와 같이 급박한 즈음에 서울대에서 휴교령을 내렸다. 모교 출신 참전자들은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북한군의 총공세를 감행한 격전지 포항, 왜관, 마산, 서울 수복과 방어전에 총알이 빗발치고 지옥 같은 전쟁터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청운의 꿈을 접은 동문이다. 사랑하는 제자를 전쟁터에 보낸 교수는 무한 장성하여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건투를 빌었다.

전쟁 중 서울대의 상처도 컸다. 최구동 당시 총장을 비롯해 상당수의 교수도 납북되었고 전시연합대학이 부산으로 이전·설치됐다. 북한군은 침략한 지 40일도 안된 짧은 시간에 낙동강까지 진격했으며, 방어할 병력자원은 부산 학생뿐이므로 김종원 경남계엄사령관은 부산지역 학교장에게 입영을 요청했다. 필자는 생환의 기약 없이 대문을 나서 1950년 9월 1일 소년학도병으로 자진 입대하여 훈련을 끝마치고 1950년 9월 29일 8사단 10연대에 배속됐다. 이때 전세는 백척간두의 위급한 시기라서 군에 가면 총알받이라고 했지만 전쟁터에서 적군과 교전 중 총상을 입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 필사즉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쟁터에서 군용차를 타고 황해도 곡산 어느 산비탈 도로를 지날 때 포연이 남은 곳을 지나면서 피아 간 신분을 알지 못하는 부상자가 신음하는 소리와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고통과 신음 소리로 “엄마, 나 죽어갑

니다” 고향을 바라보며 애탄의 절규, 고통,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목숨을 거둔 전사자를 잊을 수 없다.

전사자의 부모 형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을 치며 불리봐도 대답 없는 그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들의 피 흘린 대가로 평화와 자유를 누리 고 있다. 우리들은 몽매간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이 종식된 지 70주년이 되었지만, 조국을 구한 영웅들의 위국헌신에 측은지심은 들리지 않고 무심한 세월만 흘러, 아직도 총렬탑을 세우지 못했다. 총렬탑을 모교 학내에 세우면 전사자의 위국헌신으로 구국하여 평화와 소중한 자유를 수호케 하고, 나라 사랑과 안보의 초석이 되는 역사의 장이며, 천추에 빛날 영령들의 추모지가 되어, 우리들에게 평화, 자유, 애국의 교육장이 될 것이다.

총렬탑 건립 지난한 과정에 있어

우리가 잘 아는 관악캠퍼스 문화관의 대강당 로비 벽면에 ‘서울대학교 재학생 한국전쟁 전몰자비’가 설치돼 있으며, 사범대학 교정 안뜰에 전몰자비, 연건캠퍼스 서울대병원 구내에 현충탑이 세워져 있다. 그렇지만 서울대 광장에 만민이 우러러보며 국내외 방문객이 참배해 국화꽃 한 송이 바칠 총렬탑은 없다.

심지어 6·25전쟁 전사자의 기념탑이 경향 각지에 세워져 있으며, 서울고 교정, 그 외 여러 지방 고등학교 교정에도 그 기념탑이 있다. 서울대 재학생 46명(서울대소식 제527호)의 전사자가 있는 총렬탑이 세워지지 못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서울대 박물관 옆에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한 학생의 기념탑은 있지만 46명의 고귀한 희생자만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정코 서울대 학사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 전사자의 구국충혼을 기리기 위해 학내에 총렬탑을 세우는 것이므로 본 대학교에서 은퇴한 명예교수들이 총렬탑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2008년 10월부터 반성환 교수, 정하우 교수, 필자가 당시 이장무 총장께 직접 건의한 것부터 시작해 대학 당국과 회동, 협의했다. 명예교수협의회 이수성 회장을 위시해 최종태 교수, 이인규 교수 등의 임원 일동이 직접 이 총장께 건의하여 실현 단계에서 오연천 총장께 위임됐고 건립위원회 위원장 김태우 교수를 위촉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또 그 업무가 성낙인 전 총장으로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시 모닥불을 살리기 위해 오세정 총장께 지난 2019년 5월 14일 스승의 날 명예교수 초청 행사에 총렬탑 건립을 건의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일각에서 이 건립사업을 총장께서 실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 사유가 아직도 밝혀진 바 없지만 43만 서울대 동문의 관심사이다.

2008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렬탑 건립 계획이 추진된 기록(명예교수회보 2010, 제6호) 중 중요사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23일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해 박연수 사무총장께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과 협조 요청, 2009년 9월 2일 서울대총학생회장 박진혁에게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취지와 협조를 당부, 2010년 1월 10일 임광수 총동창회장에게 협조 요청서 전달, 2008년 11월 17일자 서울대 대학신문 <의견> 발언대 ‘서울대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2009년 8월부터 수차례 서울

“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동문에게 이념이나 진보와 보수, 좌우가 있겠는가? 우리의 운명도 생각하면서 총렬탑을 세우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대학교 이근관 기획부처장·총장과 많은 협의, 2010년 3월 26일 서울대 총렬탑 건립에 조선일보 사회부 조선석 기자도 신문에 필요성을 게재했다.

2010년 4월 사회 명사인 조웅 목사도 관심을 가져 건립비용과 소요예산에 대해 부영건설과 직접 접촉한 결과를 서울대에 제시한 바 있으며, 2010년 4월 1일 조선일보(39쪽)에 필자가 ‘서울대학엔 왜 전사한 선배들의 기념물 없나’ 기고문을 게재했다. 2010년 5월 3일 대학신문에 ‘서울대학 출신 국가유공자 추모사업 논의’, 2010년 서울대소식 제526호 ‘서울대 국가유공자 동문기념사업 본격화’, 2014년 5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서울대학생 전쟁나면 도망’, 이 기사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지 모르지만 경악스럽고 동문들은 자괴할 일이다. 2014년 8월 27일 보훈처 박승훈 처장과 성낙인 총장과 ‘한국전 참전의 길’을 협의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런 지난 과정을 간략히 소개했으나 지금은 여러 명예교수들이 관광 중에도

서울대 재학생의 전사자는 나라를 버랑 끝에서 구한 역사의 주역이었다. 서울대 동문들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전사자 동문의 눈물을 닦아줄 총렬탑은 왜 못 세우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은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동문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두고 있다.

세계 유수대학 학내 기념관 만들어

영국 이튼스쿨, 미국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예일대가 전몰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시티 한국 전쟁 기념관에 “알지도 못한 사람 만나보지도 못한 나라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미국의 아들 딸에게 경의를 표하며” 전쟁 영웅을 잊지 않는 미국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국내외에서 애국심을 선양하는데 심금을 울린 35세 김한나(김예진) 동문이 있다. 재미동포 1.5세 김한나 동문은 어릴 때 미국에 이민 갔으며 모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UCLA 조지워싱턴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미국 50주를 다니면서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들께 큰절을 올렸다. “70년 전 한국에 와서 내 부모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고. 2008년 ‘Remember 727’을 만들고 이듬해 7월 27일 미국 연방정부 청사에 성조기를 게양하는 권한을 청원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입법했다. 참으로 나라 사랑에 자랑할 만한 동문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현재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성은 멈췄지만 휴전 상태이며, 북한은 지금도 장사포를 쏘고 있다. 6·25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국력 강화와 안보가 평화의 근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높일 말이 있다. ‘독일인은 생각한 다음 걷고 미국인은 뛰면서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뛰는 도중에 뛰는 까닭을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우리 국민성을 나타낸 말로서 미국의 전 국방부장관 럼스펠드가 한국인의 건망증을 지적했으며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교훈이다.

6·25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것도 한국인의 건망과 무관하지 않으며 현재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역사적으로 회고하면 임진왜란(1592년)을 겪었던 선조 2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군 8,000명을 이끌고 침략한 것과, 정유재란(1597~1598년)에 가토 기요마사가 병사 14만명을 이끌고 침

략한 것과, 인조 14년 1636년 청나라 태종이 침입하여 삼전도에서 패한 역사적 비극은 조정의 사전 대비와 유비무환의 국정을 이끌지 못한 소치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임진왜란이 나기 전 선조는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으며 최대의 정치인 이율곡이 왜적의 침입에 방비할 10만 병사의 양병을 조정에게 건의했으나 무용화돼 드디어 선조 임금은 의주로 파견했다.

우리 미래는 젊은이들 안보의식

현재에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금과옥조는 오늘날에서 추앙을 받는 서애 유성룡 영의정이 지은 징비록이다. 오늘날이 시국에 지난 잘못을 징계하지 않거나 미래의 환란을 경계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면 환란이 닥친다. 동서의 고금을 통해 쇄망의 원인은 안보의 상실이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며 곧 평화의 근간이다. 서울대 내 총렬탑 건립은 학생들에게 호국과 안보의 초석이 되는 산상징이 되며 애국심의 발로가 된다.

6·25전쟁은 발발 70주년이 되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건이 아니다. 6·25전쟁이 나자 서울대의 전사자는 서울대학 총장의 지시와 가르침에 따랐다. 전쟁이 끝나면 북한된다는 가르침을 하를 같이 믿고 전쟁터에 임전무퇴로 위국헌신함으로 서 나라를 구했다.

서울대에 이들의 충혼을 기릴 총렬탑은 실현되어야 할 중차대한 일인데도 2008년부터 3대 총장에 이르기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동문에게 이념이나 진보와 보수, 좌우가 있겠는가? 우리의 운명도 생각하면서 총렬탑을 세우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대학 학사 행정의 집행은 총장의 전결 사항임에도 미결된 것은 총장인 동시에 스승이신 믿음 신(信)을 저버리지 않을 총렬탑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사엔 매사에 때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서울대총동창회가 이 성스러운 추모사업을 제기해 검토되길 건의한다.

전사자는 영원한 동문이다. 순국한 동문의 고귀한 희생으로 나라를 구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동문의 총의를 모아 46명의 전사자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총렬탑을 본 대학교 구내에 세우는 것이 동문들에게 부여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문들이 현 모교 구내에 상록탑을 세웠던 사례가 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한뜻을 모아 길이 빛날 영웅들의 총렬탑을 세우는 과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지부탐방 | 부산지부동창회

취미로, 나이로 헤쳐 모이니 돈독함 두배

부산지부동창회(회장 부구욱)는 1990년 기존의 지부 조직을 재정비해 출범했다. 등산과 바둑, 포럼, 골프, 합창 등 취미 동호회와 단대별·연령별 모임 등 다채로운 소모임이 2,000여 회원의 거대한 조직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으며 역동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등산 모임인 ‘관악산우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한 번씩 다녀오는 산행이 200 회차를 넘겼다. 산행 규칙을 정해 매월 단과대별로 돌아가면서 산행을 주관하고 1월은 눈산행, 8월은 계곡산행, 11월은 단풍산행을 즐기며 특별 산행과 시외 산행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췄다가 지

난 5월 재개한 특별산행은 20여 명이 모여 부산 금정산 고당봉을 다녀왔다. 골프 모임 ‘부산관악회’ 또한 동창회 초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입회비를 얹으며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했다.

바둑과 장기 모임인 ‘관악기우회’는 몇 해 전 자체 제작으로 10년사를 발간했을 만큼 유서 깊다. 매달 정기적으로 대국을 열고 수담으로 동문 간의 정을 쌓는다. 지난 6월 6일 저녁 달 만에 기원에 모여 191차 월례회를 열었다.

‘마로니에클럽’은 포럼 형식의 모임으로 고담준론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사상의학, 헬스,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

을 교류하는 곳이다. 합창 모임은 격주로 만나 최상의 하모니를 위해 입을 맞춘다. 노래를 좋아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부구욱(법학70~74) 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은 동창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기대가 크다. 1980·1990·2000년대 학번 동문들이 주축이 된 관악세대 모임이 이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 동창회에 참여하기를 망설이는 젊은 동문들을 불러모으는 창구다. 80·90학번만 신년 모임을 가져도 30~40명이 모인다.

이렇게 소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보고 친목하니 모두가 모여도 ‘데면데면’할 일이 없다. 연 두 차례 전체 동문 대상 대규모 행



2019년 10월 동문가족 만남의 장 행사 때 촬영한 기념사진. 연말 송년회와 함께 부산지부 전체 동문이 모이는 자리다.

사를 연다. 매년 10월 셋째주 일요일 ‘동문가족 만남의 장’, 연말에 서면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동문가족의 밤’이다.

동문가족 만남의 장은 와이즈유(구 영산대) 총장 부구욱 회장의 배려로 영산대 캠퍼스에서 진행해오고 있다. 가족단위로 게임과 노래 등을 즐기며 한바탕 놀 수 있는 날이다. 연말 모임인 동문가족의 밤은 송년음악회를 여는 것이 전통이다. 2016년부터는 관악세대 합창단의 공연도 정례화

되어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말을 장식한다. 박용태 사무처장은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대다수 회원의 찬성을 얻어 5월 중순부터 동호회 모임들을 재개했다”며 아직 동창회에 참여하지 않은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동창회 소식과 공지는 다음 카페(cafe.daum.net/snuabusan)에 게재한다. 동창회 사무실(051-811-1013, 월수금 운영)로도 문의를 받는다.

박수진 기자

The Sustainable and Leading Procurement
Solution Expert being The Best Partner of Choice

SERVEONE
서브원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의 성공을 원한다면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의 성공을 도울
MRO 업계 1위의 파트너와 함께 하십시오
서브원은 20여 년간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원가절감을 통해
고객의 구매경쟁력을 높여드립니다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구매 솔루션 전문기업, 서브원

서브원은 최적의 구매 솔루션을 기반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원가절감을 실현하여 구매 경쟁력을 창출합니다



600여개 고객사



20,00여개 협력사



100만 여종 취급상품



네트워크 (국내 12개소, 해외 10개소)



국내 외 중국, 베트남, 유럽 등 글로벌 MRO서비스

Tel. 080-453-8585

e-mail. mroservice@serveone.co.kr

Website. www.serveone.co.kr

Mall. <https://mall.serveone.co.kr>

모교, 네이처 연구기관 순위 5년 연속 국내 톱



세계 순위 66위, 3계단 상승 화학·생명·지구환경 점수 높아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매년 전 세계 연구기관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네이처 인덱스’에서 모교가 5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경쟁력을 보여주는 기초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지표다. 네이처는 지난 5월 26일 ‘네이처 인덱스 2020’을 공개했다.

네이처 인덱스의 분석 대상은 주요 자연과학 학술지 82곳에 한 해 동안 게재된 6만

여 편의 연구 논문 데이터다. 논문 수와 공유수, 작성 기여도, 학문 분야별 가중치 등을 분석해 연구성과를 수치로 변환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연구기관별, 교육기관별 순위와 신흥 대학 순위, 정부 연구소 순위, 자연과학 분야별 기관 순위 등 다양한 순위를 발표한다.

네이처 인덱스가 다루는 네 개 자연과학 연구 분야 중 모교는 물리 연구 성과의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순이었다. 이 중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환경 분야에서 국내 1위

를 차지했다. 물리 분야는 카이스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서는 모교의 뒤를 이어 카이스트가 2위, IBS(기초과학연구원)가 3위에 올랐다. 그 다음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스텍, 고려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순이었다.

전 세계 순위에서 모교는 66위를 차지해 지난해 69위보다 소폭 올랐다. 100위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관은 모교와 카이스트(79위)뿐이었다. 서울대와 IBS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세계 순위는 하락했다. 전 세계 1위는 중국과학원(CAS), 2위는 하버드대, 4위는 독일 막스플랑크협회였다.

앞서 4월 30일 네이처가 발표한 ‘2020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는 기업을 제외한 교육·연구기관이 평가대상이다. 교육기관 순위에서도 모교는 세계 58위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2위 카이스트, 3위 연세대, 4위 성균관대, 5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순이었다. 전 세계에서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MIT 순으로 나타났다.

이강근 교수 “소량의 물 주입으로 큰 지진 가능”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소량의 물 주입으로 촉발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총괄단장인 이강근(지질과학80-84)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비롯해 연구단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5월 26일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했다.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에 지열 발전을 위한 소량의 물 주입으로 포항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촉발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시됐다.

연구는 포항지진 사례를 통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포항지진의 사례연구를 통해

물 주입에 따른 촉발지진의 발생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이다. 포항지진이 일어나기 몇달 전인 2017년 4월 규모 3.2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단층에서의 공극압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 지진임을 알 수 있었다. 공극압은 암석이나 토양 사이의 틈을 유체가 채울 때의 압력을 뜻한다.

2017년 9월 물 주입 종료 후 공극압은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포항지진이 일어난 11월 15일 진원지에서는 지진 발생으로 주변에 응력이 전달되는 쿨롱응력의 변화가 공극압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앞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 지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큰 지진이 촉발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를 통해 “공극압의 변화와 초기 지진들의 위치, 그리고 이러한 지진들로부터 야기되는

응력의 변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이 큰 지진의 촉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에는 이강근 모교 교수와 해외조사위원장인 미국 콜로라도대 세민 게 교수, 국내조사단장 전남대 여인옥 교수, 미국 노턴일리노이대 메건 브라운 교수가 참여했다.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린 후에도 근거가 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국제적인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학계의 리뷰 시스템을 통해 검증했다. 또 국제학계에 포항지진과 같은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왔다. 이번 논문과 이전에 발표한 3편의 논문을 합하면 포항지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거의 다 다뤘다.

휴먼스 오브 스누 • 9

요즘 서울대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모교 재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해 기록하는 휴먼스 오브 스누 프로젝트가 동창신문에 인터뷰를 제공합니다. 이들이 만나서 묻고 듣는 소소한 이야기 속에 후배 재학생들의 일상이 보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페이스북(@humansSNU)과 인스타그램(@humanssnu)에서 다른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의 선에 기여하는 모습 멋져보였죠”

-대학원(건축)에 진학한 계기가 있었나요?
“생각에 확 변곡점이 되는 포인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1학년부터 지금 9학기째 다닐 때까지, 서서히 생각이 발전해 온 거죠. 다 종합해서 선택을 내린 건데. 물론 중간에 이렇게 ‘뽕’(자부심의 은어)이 차오르는(웃음) 그런 포인트들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2016년 경주 지진이 났는데 제가 신입생 때였거든요. 전공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한 번은 휴강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오셔서 ‘지금 경주에 있는 문화재들이 지진 이후에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다 검토를 하고 왔다’ 하시더라구요. ‘이거다’ 싶었죠.(웃음) 서울대 교수님쯤 되니까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서울대 빠더라도, 멋있잖아요. 내가 ‘bigger good(더 큰 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로는 3학년 때던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상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리조트 관리자는 시공업자든, 분명 책임 소재가 있는데 책임을 물으려면 ‘이게 애네 탓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고소를 하려고

해도 범조계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한테 자료를 구한 거예요.

교수님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게 이렇게 해서 무너진 거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고 밝혀내신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로, 법정에서 그 피고인들이랑 교수님이랑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만났대요. 소변을 보시는데, 옆에는 교수님이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인 거죠(웃음). 그래서 그때 되게 ‘졸리셨다’고. 그렇지만 들어가서 하실 말씀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말을 듣는데... ‘저거지’, ‘아 저거다’ 싶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생각이 확 틀어져서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빌드업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물론 다른 세부전공에 있어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 저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보람 차겠다. 돈도 돈이지만’ 싶죠.”



공과대학 재학생

“좋은 리더는 결정 빠른 사람”

-최종 지향점이 무엇인가요?

“저의 지향점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리더라는 게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이라구요. 그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결정에 영향을 받는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나 자신의 책임감 또한 리더의 몫이라구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 무언가를 책임지는 걸 스스로 되게 즐겨 하고, 좋아하더라구요. 저도 아직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고 이 사회에 유의미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저의 궁극적인 이상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리더’란?

“좋은 리더라는 건 첫 번째로 결정이 빨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리더라는 건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단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리더는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 빠른 결정에 대한 책임

감이 있어야 해요. 그 빠른 결정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내 집단의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 집단내의 사람이 집단 관련된 행동을 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든, 혹은 이 친구가 뭔가 사적인 일로 피해가 생겼어도 제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들면 리더는 그 사람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사회적인 범위로 확장하면 기업가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리더들이 구성원의 생사나 사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업가가 아니라 자세한 내막을 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리더라면 한 집단의 리더로서 구성원의 세세한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재학생

Think Different!
Do Excellent!

JB WAY

행복

우리는 건강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고객에게 편안한 일상을 제공합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한 정이 깃든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그린나래봉사단'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랑 가득한 나눔 릴레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부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JB 주식회사 | JB 에너지 | 중부재단

www.jbcorporation.com | www.jbenertek.com | www.jbfoundation.or.kr

제2회 서울대 인문대학 문학상에 심보선 동문

시집 ‘오늘은 잘 모르겠어’ 고통스러운 시대 현실 담아



시인 심보선(사회 88-95·사진) 동문이 2017년 펴낸 세 번째 시집 ‘오늘은 잘 모르겠어’로 제2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6월 12일 인문대 두산인문관(8동) 보름홀에서 수상자의 가족과 지인만 초청해 간소하게 개최됐다. 심 동문은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문학상 선정위원회는 선정 이유로 “본질

적 언어의 세계를 통해 고통스러운 시대적 현실을 딛고 차원 높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구도자적 정신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심 동문은 모교 사회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학생이던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풍경’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시집으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슬픔이 없는 심오초’를 비롯해 ‘눈앞에 없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등을 냈다. 예술비평집 ‘그들인 예술’, 산문집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를 펴내고 사회학

분야 책을 쓰고 번역하기도 했다. 심 시인은 “학창시절 같이 글을 쓰고 서로 나누며 합평을 해주는 친구들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다”면서 “그때 외로움이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심 동문의 지도교수였던 박명규(사회74-78) 사회학과 교수가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를 했다.

서울대 인문대학 문학상은 2019년 서울대와 인문대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모교에서 공부하거나 재직했다면 장르를 불문하고 최근 5년 이내 가장 우수한 작품을 쓴 작가를 선정한다. 제1회 수상작은 소설가 최일남(국문 52-57) 동문의 소설집 ‘국화 밑에서’였다.

최규훈 동문 발전기금 1억원

교원임용시험 학원 ‘커넥츠 임용단기’ 감사로 재직 중인 최규훈(체육교육94-00·사진) 동문이 지난 5월 21일 체육교육과에 사도(師道)장학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최 동문은 체육교사를 준비하는 임용고시생 사이에서 전공체육 과목 스타 강사로 꼽힌다. 2018년부터 ‘공단기’ ‘영단기’ 등 유명 시험 전문 브랜드를 거느린 예스티유니타스 산하 임용단기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 동문은 “교육현장에서 많은 학



생들을 만나며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 후배들을 응원하는 방법을 찾던 중 모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길을 걷는 후배들을 위한 사도장학기금을 통해 장학생들이 스승 된 도리를 다하는 품성을 배우며 확고한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갖고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설학교진흥원 개원, 4개교 통합 관리



모교의 4개 부설학교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기관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흥원’이 지난 6월 10일 개원했다. 초대 원장은 조영달(사회교육79-83·사진) 사회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중앙동의 옛 상과대학교사 자리에 신축한 모교 사대부설교 교사에서 오세정 총장과 보직교수, 사범대학장과 부설학교 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진행했다.

모교는 사범대 산하에 부설초교와 부설중, 부설여중, 부설고의 4개 부설학교를 두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이들 부설학교가 개별화되면서 부설학교들의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웠고, 시설과 예산 활용도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공립학교의 교육청과 사립학교의 사무국처럼 부설학교를 통합 관리



하고 지원하는 상설집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설립된 진흥원은 지난 2월에 제정된 부설학교진흥원 규정에 따라 부설학교의 교원 복무와 교육사업 및 장학, 예산 및 시설 등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부설학교발전 연구를 수행하고 부설학교와 대학 간 연계와 상생을 도모하며 공교육의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부설학교와 진흥원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포럼이 함께 열렸다. 조영달 원장과 김선희 불어교육과 교수가 각각 강연했다.

모교 단신

2022학년부터 ‘성적표 표준점수’ 반영

모교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기존에 활용하던 ‘서울대 자체 변환표준점수’ 대신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를 반영하겠다고 지난 5월 29일 밝혔다. 그간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자체 제작한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해 왔으나, ‘문·이과 통합형 수능’인 2022년부터는 수능 성적표의 표준점수가 이미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반영하고 있어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입시업체에 자문받는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10명 중 8명’ 합격

지난 1월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67명이 응시하고 135명이 합격해 국내 25개 로스쿨 중 가

장 높은 80.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세대가 75.8%(153명 응시 116명 합격), 성균관대가 75.3%(166명 응시 125명 합격)로 뒤를 이었다. 모교는 변호사시험 1회부터 9회까지 1,212명의 누적 합격자를 냈다.

시흥서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착수

모교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센터장 이경수)와 LG유플러스, 오토모스로 구성된 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최근 시흥배관신도시 일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모교의 자율자동차 운행 알고리즘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오이도역과 배관신도시 사이 구간에서 호출을 통해 이용하는 심야 셔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총 8대를 운영한다.

김소진 작가 재학시절 습작시 발굴

90년대 리얼리즘 대표 작가로 촉망받다

34세에 요절한 소설가 고 김소진(영문82-88) 동문이 재학시절 쓴 시를 모교 동문들이 발굴했다. 작가의 월남민 아버지를 소재로 한 시 ‘함경도 아바이’로 ‘자전거 도둑’ 등 그의 초기 소설의 원류를 보여준다. 1985년 모교 단과대별 문학회 연합 ‘대학문학운동협의회’가 펴낸 ‘4월혁명과 통일문학’에 게재된 것을 윤대석(공법90-94) 모교 기록관장과 김 동문의 절친이었던 정홍수(국문82-88) 강 출판사 대표가 함께 찾아냈다.

미 대학우주연구협회 가입

미국 대학우주연구협회(USRA)가 지난 5월 4일 모교와 카이스트를 회원으로 영입했다. USRA는 우주 관련 과학, 기술 및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로 우주나 항공우주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한 등의 경우에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113개 대학이 회원이다.

주식회사팜스코는 사료, 계열화, 신선식품, 육가공 사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축산전문기업입니다.

No.1 Partner, Everyday with Farmsco
www.farmsco.com



축산식품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합니다.



주식회사 팜스코는 사료에서 양돈, 식육,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강한 식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신물류의 개척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물류사업을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無에서 有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류가치의 창조자!

물류시스템의 혁신으로
저비용 고효율 물류가치를 창조하여
고객기업의 훌륭한 물류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공동물류의 선구자!

200,000여 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파렛트풀과 컨테이너풀로 Unit Load System을 구축하여
한국경제는 물론 국제무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CM Consultant!

물자의 공급망체계에서 물류전략은 기업의 핵심과제입니다.
로지스올은 SCM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항상 고객과 공존공영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삼창빌딩 6,7층) Tel : (02)3669-7030 Fax : (02)3669-7039

www.LogisALL.com

한일 합작 글로벌 IT기업 연내 뜬다...과녁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황인준 (경제85-89) 라인 최고재무책임자

라인·야후 재팬 경영통합 주도 “1억 3000만 사용자가 경쟁력”

지난해 말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 산하 검색 포털업체 ‘야후 재팬’이 경영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라인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합작회사를 설립, 합작회사의 지분 60%로 야후 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를 인수해, 라인과 야후 재팬을 나란히 산하에 두는 구조다. 라인과 야후 재팬의 이용자 수를 합치면 일본에서만 약 1억 3,000만명, 시가총액은 약 3조엔(약 34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서 다시 나누는 복잡다단한 ‘빅딜’을 황인준(경제 85-89) 라인 최고재무책임자가 주도하고 있다. 황인준 동문을 지난 5월 29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만났다.

“50 대 50.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동등하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겸 라인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두 분이 속전속결 용단을 내리면서 순조롭게 경영통합이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난리를 겪는 상황에서도 24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차질없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라인은 한일 양국에 걸쳐 있어 복잡한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꾸준한 논의 끝에 돌

과구를 마련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를 모기업으로 하는 일본 법인인 동시에 대만·태국·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해 있어 정부의 승인은 아시아 5개국의 승인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현지 통신망이 무너졌을 때, 3개월 만인 그해 6월 출시된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등극했다. 메신저를 플랫폼으로 게임, 웹툰, 쇼핑, 간편결제, 음원 스트리밍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카카오톡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2020년 1월 기준으로 카톡의 국내 사용자 수가 4,519만명,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용자 수가 5,177만명인 것에 비해 라인의 사용자 수는 같은 해 3월 기준으로 일본에서만 8,400만명, 전 세계 사용자 수는 1억 8,500만명에 달한다. 양국 간 갈등의 영향으로 한국 IT 기업의 일본 진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라인의 이러한 위상은 독보적이다. 때문에 일본에선 라인의 국적 논란이 이슈화되기도 한다.

“라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네이버 출신의 한국인 임직원이 기획 개발을 주도했지만, 개발 책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스태프가 일본인이고 이사회 구성원도 일본인이 과반을 차지하죠. 도쿄에 본사가 있고 일본의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되며, 세금도 일본에 내고 있습니다. 신중호-이데자와 다케시 공동대표 체제하에 양국 임원이 경영진으로 함께

일하고요. 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라인이 진출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며, 기술을 향상시켜 인류에 공헌하는 등 기업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소모적인 국적 논란은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황 동문은 라인의 현지화 전략 중 하나로 ‘문화 코드’의 반영을 꼽았다. 라인, 카톡, 위챗이 회사는 다르지만 유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결국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선 성공한 앱이 다른 나라에선 꼭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문화 코드에 있다는 것. “국내에서 라인을 보면 깔끔하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일본에서 카톡을 보면 어쩐지 이상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 문화와 일본인 유저의 속성을 체화하여 어플에 반영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적극적인 이모티콘 활용을 들 수 있다. 무표정한 갈색 곰 ‘브라운’, 재기발랄한 흰 토끼 ‘코니’를 필두로 각국의 문화와 풍습을 담는다.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선 라마단 기간 특별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는 식이다.

“일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중엔 들어와서 1, 2년 해보다 안 되면 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시장을 파악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라인은 2011년 개발

및 출시됐고 성공을 거뒀지만, 그전에 7년여 동안 게임·검색 등 여러 사업을 시도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라인이 나올 수 있었고, 일본 최대 검색 포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라인과 야후 재팬은 경영통합을 계기로 그전까지 출혈경쟁을 이어오던 핀테크사

업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금융·증권 사업에 새 전기가 마련된 만큼 라인의 최고재무책임자이자 ‘라인 파이낸셜 아시아’의 대표로서 황 동문의 활약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그는 이미 2016년 라인의 도쿄 및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때 대박을 터뜨린 바 있다. 도쿄 증시에선 공모가의 48.5%를 웃도는 4,900엔(약 5만2,000 원)에, 뉴욕 증시에선 공모가보다 27% 비싼 41.58달러(약 4만7,000원)에 첫 거래를 시작했다. 라인 파이낸셜 아시아는 2018년 KEB하나은행 인니 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메신저 플랫폼으로서 현지에서 쌓아온 유저 베이스와 브랜드 역량,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인 벤처스’의 대표직 또한 겸하고 있는 황 동문은 서울대 후배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문했다.

“저는 월급쟁이였지만 새로운 도전을 쫓아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모교 졸업 후 뉴욕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 삼성전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증권사와 금융사를 거쳐 IT 기업에 몸담고 있죠. 재무·경영을 중심으로 여러 업종을 다양하게 경험한 셈이에요. 그렇게 업종 간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취지였죠. 아쉬운 건 직접 창업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도전의 정점은 창업이거든요. 라인 벤처스의 대표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현지의 AI·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교 후배들이 이 펀드의 기금을 수시로 받아가면 좋겠네요.” 나경태 기자



주요 업무

- 부동산 투자자문
- 자산 유동화
- 부동산 금융 구조화 및 파이낸싱
- 부동산 개발자문
- 부동산 상품기획, 밸류어드 및 수익률 극대화 서비스

새로운 부동산 투자시장의
그 가치와 원칙을
NPA와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NPA

NP advisors (엔피어드바이저스) 대표이사 전 경 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3층
Tel. 02-6267-0351 / Fax. 02-6267-0357
E-mail. admin@npinvestors.com

www.npadvisors.co.kr



카드를 넘어 세상에 없던 경험으로

카드가 지금보다 스마트해지면
당신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갑 없이 QR결제로 간편하게 살 수 있고
꼭 필요한 혜택이 알아서 찾아오고
결제를 넘어 금융 서비스까지 한 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카드 이상의 카드 생활
BC만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 갑니다

Beyond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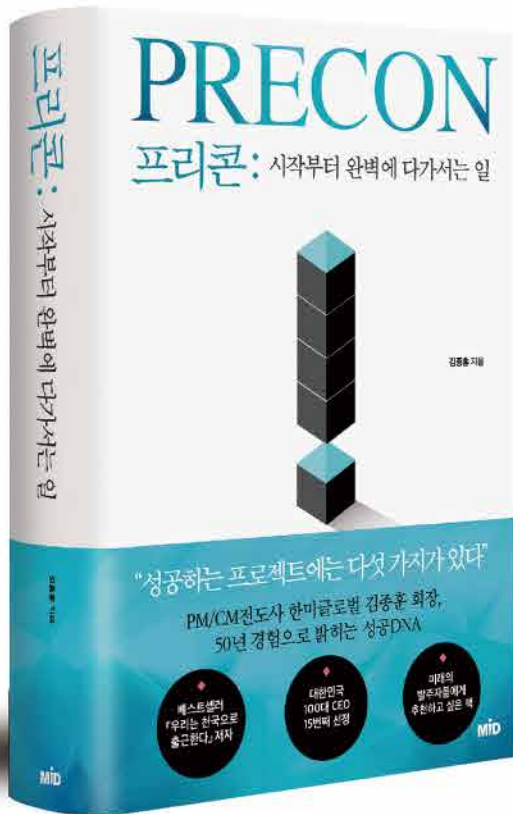
 비씨카드

프리콘을 모른다면, 어떤 프로젝트도 시작하지 말라!

시작부터 완벽에 다가서는 방법, 프리콘이 답이다.

출간 즉시
2쇄 돌입

교보문고,
에스24
베스트셀러



김종훈 지음 | MID 펴냄 | 376페이지 | 정가 20,000원

“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리더이며,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은 곧 조직의 발주자다. 이 책을 읽는 모든 현재와 미래의 리더들이 각자의 업에서 미래의 변신을 치열하게 도모하길 바란다.

”

권오현(삼성전자 상근 고문 / 前 종합기술원 회장 / 『초격차』 저자)

“

자기 분야에만 치우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다. 한 분야에서 50년 경험을 쌓은 분의 이야기는 사회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 더 많은 리더들이 책을 읽고 배움과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희범(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 前 산업자원부 장관)

완벽을 지향하는 프로라면 누구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
베스트셀러 경영 에세이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의 **김종훈 회장**,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전하다!

Welcome Impossible

MID

동문맛집

클래식이 흐르는 카페...날마다 맛있는 라이브 공연

윤보영(기악04-08) 살롱 샤론느 대표

‘악성(樂聖)’이라 불리는 베토벤은 매일 아침 원두 60알을 일일이 세어 커피를 내렸다. 손님이 오면 120알, 180알을 손수 세었다. 음악에서뿐 아니라 커피 취향에서도 완벽주의자의 면모가 엿보인다. ‘살롱 샤론느’의 윤보영(기악04-08) 대표가 에스프레소에 ‘베토벤 커피’라 이름 붙인 이유다. 베토벤의 그 고집스러움만큼 진한 커피 향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부산 해리단길에서 처음 문을 연 살롱 샤론느는 카페와 클래식 음악을 융합시킨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보영 동문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저희 매장에서 아인슈페너는 ‘모차르트 커피’입니다. ‘한 마리 말이 끄는 마차’라는 뜻의 아인슈페너는 오스트리아 빈의 마부들이 피곤을 풀기 위해 설탕과 생크림을 듬뿍 얹어 마시던 커피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빈은 모차르트의 출생지기도 해서 그의 이름을 따왔죠. 알코올이 들어가는 갈루아 커피는 ‘브람스 커피’예요. 옥스퍼드 사전엔 ‘브람스와 리스트(Brahms and Liszt)’라는 말이 ‘주당’ 또는 ‘만취했음’을 뜻하는 속어일 정도로 술을 좋아했죠. 커피 한잔이라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작곡가와 연계시킨 커피 메뉴는 아메리카노-바흐, 카페라페-부르크너, 바닐라라떼-피아졸라까지 6가지에 이른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윤 동문의 애뜻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뉴질랜드에서 보낸 유년 시절, 윤 동문은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접했고 현지의 음악 영재들이 모인 연합 오케스트라단에서 한국인 최초로 협연을 했다. 귀국 후 서울에 고를 거쳐 모교 음대에 입학, 모교 대학원 졸업 후 10여 년간 ‘코리아심포니’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가 됐다.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복직을 고민하던 중 남편의 고향인 부산으로 여행을 왔어요.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조그만 골목에 ‘음악인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여기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한두 번쯤은 무모해질 때가 있잖아요. 모험인 줄 뻔히 알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음악만 해오던 제가 커피 내리는 법부터 내부 장식, 청소, 설거지까지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치며 배웠습니다. 모르는 만큼 겸손해지기



살롱 샤론느 라이브 공연 모습(위)과 샤론느 커피(오른쪽 작은 사진).

“음악인의 놀이터 만들겠다 꿈 남편 고향 부산에서 이뤘어요”

도 해서 청결한, 좋은 재료, 정성 등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살롱 샤론느의 시그니처 메뉴는 ‘샤론느 커피’가 된다. 윤 동문의 땀과 눈물, 도전과 노력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커피의 쓴맛과 우유의 부드러운 맛이 섞인 라떼에 그가 직접 만든 수제 자몽 청을 가미한 샤론느 커피는 시고 뚝은 끝맛이 오묘해, 들을 때마다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 ‘샤론느’의 음악적 특색을 떠올리게 된다고.

“샤론느는 16세기에 에스파냐에서 발생한 4분의 3박자의 느린 춤곡으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변주곡입니다. 짧은 테마를 반복하는 동시에 다양하게 변주

시켜 15분에 이르는 유장한 음악으로 확장되기도 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상이 달라지는 삶의 묘미가 샤론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머물다가는 시간은 짧지만, 손님들 저마다의 일상에 변주를 일으켜 더 친근하게 클래식을 접하고 더 자주 즐기게끔 하는 작은 테마가 되고 싶습니다.”

‘카페’가 아닌 ‘살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음료가 아니라 음악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그러나 개점 초기엔 공연이 무료였다. 커피값은 아끼지 않아도 공연비는 아깝다고 여기는 그릇된 인식 탓에 음료에 공연을 끼워 팔았던 셈. 하지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고크리티 공연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관객을 불러모았다.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생겨날 정도. 클래식 음악의 진가가 발휘되자 만원의 입장료를 흔쾌히 지불하게 됐다.

살롱 샤론느에선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며 공연을 보는 데서 나아가 희망하는 악기를 배워볼 수도 있고 프로의 도움을 받아 작은 연주회를 함께 열어도 된다. 윤 동문이 창단한 ‘해운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다. 그는 또 ‘바이올린 원데이클래스’, ‘샤론느 키즈 클래식 콘서트’를 도입해 클래식 음악 향유층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개점 후 1년 6개월 남짓 되는 동안 이만큼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는 부산지역 아티스트들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됐다.

“지난해 피아니스트 김문영 씨와의 협업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연주했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입장료 및 카페 수익금을 아티스트와 나누긴 하지만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저렴한 입장료로 적은 액수밖에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가까이 함께 해주십니다. 연주는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을 위해 평생 동안 준비와 연습을 해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해요. 손님들뿐 아니라 음악가 분들에게도 더 요긴하게 쓰이는 살롱 샤론느가 되겠습니다.”

50석 규모의 공간으로 행사 진행에 필요한 마이크, 빔프로젝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주차불가.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로 38번가길 15 **문의** 010-4018-1979

화제의 동문

유튜버

(6) ‘코미꼬’ 개그맨 김병선

‘개콘’에서 스페인 무대로 좌충우돌 도전기

KBS공채 출신, 스페인어 유창 ‘갓 텔런트 에스파냐’ 본선 진출

“나는 스페인에 하몽이나 파에야를 맛보러 온 게 아니야. 농담 간을 보러왔어”. 김병선(체육교육07-16) 동문은 유창한 스페인어로 스페인 사람을 웃기는 한국의 개그맨이다. 스페인어로 코미디언을 뜻하는 ‘코미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 스페인 코미디 도전기와 중남미 문화 콘텐츠를 올리며 구독자를 24만명까지 모았다.

태권도 특기자로 모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김 동문은 대학 시절 발표가 좋아 개그에 입문했다. 2013년 KBS 28기 공채 개그맨에 합격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스페인어는 코이카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페루에서 군 복무를 할 때 익혔다.

2016년 페루의 코미디 행사에 참가해 자신의 스페인어 개그가 현지에서 통하는 것을 알게 된 그는 2018년 2월 무턱대고 스페인으로 날아간다. ‘오픈 마이크’로 불리는 카페와 바의 스탠딩 코미디 무대를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내친 김에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갓 텔런트 에스파냐’에 도전해 한국인 최초로 본선까지 올랐다.

생활비가 필요해 유튜브를 열었지만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에 대한 현지 축구팬 반응을 번역해 올린 영상이 대박을 터뜨렸다. 덩달아 스페인에서 코미디언으로 고군분투하는 그의 이야기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구독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유쾌함과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객석의 반응이 싸늘해도, 현지 개그맨이 인종차별 개그를 해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개그로 응수해 상황을 반전시킨다. ‘자신감이 대단하다’,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인종차별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멋있다’는 댓글이 달린다.

차별적인 발언에 대처하는 팁도 알려준다. 중국인으로 불렸을 때 할 수 있는 대답 중 하나가 “나는 실업자야, 그래서 스페인 사람이야”. 실업 문제가 심각한 스페인의 상황을 비튼 유머다.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는 질문에는 “내 행동에 따라 달라졌다”는 답을 권한다. 경험상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도 태도를 달리 하면 친구가 되더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김 동문은 무대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 강연과 스탠드업 코미디를 계속하고 있다. 유튜브에선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을 자칭하며 스페인어 교육과 중남미 여행까지 콘텐츠를 확장시켰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 관련 영상을 올렸다. **박수진 기자**

동화청과는 농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농작물 하나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하는 농민의 마음처럼 투명한 거래와 안정적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동화청과

저자와의 만남



아내 글 모아 ‘부부의 사계절’
펴낸 손병두 동문

손병두(경제60-64) 삼성경제연구원 상임고문이 아내 박경자 씨가 SNS 등에 남긴 솔직한 결혼 생활을 엮어 ‘부부의 사계절(행복에너지 간)’이란 책으로 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공감하는 젊은(혹은 중년) 부부들에게 80대 노부부가 들려주는 결혼 생활 잠언서로 읽힌다.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병원 가는 아침, 밥 차려 놓고 병원 가라는 남편(손병두)의 정나미 떨어지는 소리부터 남편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국민(초등)학교 여자 동창에 대한 참견까지 52년 부부의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애환을 솔직 담백하게 풀어냈다. 그 속에 진한 부부애와 참된 결혼의 의미가 전해진다. 저자는 결국 결혼 생활은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오력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력도 아니고 노~오력이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만난 손병두 동문은 “2018년 결혼 50주

년을 맞아 아내 글을 엮어 책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 하나며 극구 반대해 오랜 설득을 거쳐 이제야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도곡동 성당에 ME(Marriage Encounter 부부일치운동) 교육을 받은 분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이 있어요. 그곳에 매일 부부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면서로의 생각을 올려요. 아내의 글에 호응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에 대한 흥도 있지만 오히려 반성하게 되고 새롭더라고요. 우리 부부 삶의 사계절,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글이어서 제목을 ‘부부의 사계절’로 했지요. 처음에는 가족, 성당 사람들, 친구들과 나눌 정도로만 인쇄할 생각이었는데, 출판사에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좀더 많은 부부에게 전하면 좋겠다고 해서 서점에도 깔리게 됐죠. 출간 일주일 만에 2쇄를 찍었습니다.”

“ME 교육받고 삶이 달라졌다”

손 동문 부부의 만남은 한편의 드라마다. 성모님을 닮은 배우자를 찾던 그는 1968년 출장 중 기차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녀의 친절에 감동, 처음 만난 그날 그녀 집을 찾아가 장인어른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력서를 한 통 내밀고 한 달 뒤 다시 찾아가 승낙을 받았다.

낭만적인 결혼이었지만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 생활은 전쟁이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 오기 일쑤, 연년생으로 네 명의 아이를 둔 아내는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게 졌다. 로맨스는 시들해지고 생활은 무미건조해졌다.

손 동문은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신앙

생활도 땅 위를 구르는 낙엽처럼 메말라 갔을 때 ME를 알게 됐다”고 했다.

“결혼 9년차 됐을 겁니다. 1977년 3월에 한국에 ME 운동이 들어왔어요.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 신부님이 시작한 부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박 3일 44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석을 했어요. 제 인생관이 180도 변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났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고, 부부란 무엇인지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다. 일 중심 가치관에서 관계 중심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이후, 대기업의 젊은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다 한순간 잘리는 신세가 되면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도 느꼈고, 40대에 미국 유학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아내 홀로 뺑뺑이를 하며 네 아이를 키워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아내가 폐암 투병으로 고통스런 나날도 보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ME로 회복된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여러 단체, 기관의 장을 하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40년간 ME 운동에 헌신하며 한국ME대표부부, 아시아ME대표부부로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같은 방 써야

손 동문은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해 배웠냐”고 물었다. “지금은 여러 종교 단체에서 결혼 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춘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합니다. 갈등할 때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충성하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혼인의 신성함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 결혼 후라도 배울 생각을 해야죠. 헤어지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ME 등 부부 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ME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부부는 9만쌍에 이른다. 손 동문의 두 아들과 며느리, 두 딸과 사위도 교육을 받았다.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다



만 부부생활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되는 결혼 5년차 이상 부부만 받는다. ME 운동에서 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대성기공’. 대화, 성생활, 기도, 공동체 의식의 준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손 동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다.

“부부관계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로 풀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전에 신뢰도 쌓아야죠. 그러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것 하나 숨기지 말아야 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소통되고 그러면 화해도 협력도 됩니다. 선순환이죠. 상상요로만, 자기만 옳다 생각 말고 상대방 처지도 생각하면서요. 순간을 참으면 많은 보상이 있는데, 그걸 못해 안타까운 부부들이 많죠.”

작은 아이 때문에 각방을 쓰고 있다는 기자에게 “오늘 당장 합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간격이 계속 넓어진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같은 방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병두 동문은 대학 2학년 때 천주교에서 세례(세례명 돈보스코)를 받고 상대가톨릭학생회 회장을 지냈다. 2015년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장, 코피온 총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호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가톨릭과 관련해 천주교 전국 평신도협의회 회장, 서강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분도 복지관 운영위원장을 20년 넘게 맡았다. 현재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아내와 새벽미사, 성경나눔을 통해 매일매일을 부부의 날로 지내고 있다.

김남주 기자
ME 만남의 집 문의 02-511-9901

BOOKS

새마을운동 이렇게 시작됐다

고병우(경제52-56) 전 건설부 장관
기파랑



새마을운동은 국내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빈곤 탈출의 세계적 모델’로 인기가 있다. 새마을운동 자료 일체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돼 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의의에 대한 자료는 많아도,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증언은 그동안 없었다. 바로 그 아쉬움에 응답하듯, 박정희 대통령 당시 농림부 실무과장·국장으로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며 새마을운동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디테일을 다듬어 나간 고병우 전 건설부장관이 새마을운동 출발과 과정을 면밀하게 기록했다.

많은 국민이 ‘잘살기 운동’으로 기억하는 새마을운동. 그 잘살기의 목표가 ‘1980년대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였다.

우리 언어 문화의 바른 길을 찾아서

고영근(국문56-61) 이국로박사 기념사업회 회장
집문당



고영근 모교 명예교수의 어문 수상집. 우리 언어문화의 바른 길을 탐색하는 글을 모았다. 저자는 이 책의 곳곳에서 우리말 어휘를 바르게 구사하고 새말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한자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며, 우리말로 문장을 논리적으로 구성

하는 데 있어 토(구결)가 붙은 한문을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은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전통시대와 같이 정규 한자와 고전 한문을 매개로 하여 ‘동북아 언어 문화 연합’을 구성하면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운 문학 그리운 이름들

김주연(독문60-64) 평론가
문학과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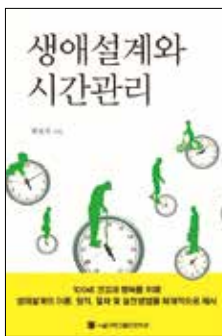
원로 문학평론가 김주연 동문의 팔손 기념 비평집 ‘그리운 문학 그리운 이름들’이 출간됐다. 60여 권에 이르는 평론집, 독문학 전공서 및 번역서와 편저서를 쓴

김 동문의 이번 비평집은 디지털시대 문학의 새로운 위상과 사명을 치열하게 묻고 있으며, 아날로그시대의 문학과 작가들에 대한 그리움의 분석을 함께 다루고 있다. 김 동문은 그동안 수명여대 독문과 교수 및 석좌교수로 30여 년 재직하면서 계간 문학과지성사 창간 동인으로 지금까지 한국문단의 중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지도적인 비평가로 알려져 왔다. 문학의 시대적, 사회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치밀한 작품분석을 동반해 나가면서 한국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평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생애설계와 시간관리

최성재(사회사업66-70) 모교 명예교수
서울대출판문화원

모든 연령층의 100세 건강과 행복을 위



한 생애설계의 이론, 원칙, 절차 및 실천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책. 책은 지난 40년간 고령화사회와 생애발달과정을 연구한 결과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실현 현장에서 일한 최성재 동문의 경험을 집대성했다. 저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재무나 건강 등 일부 영역에 치우친 설계가 아닌, 가능하면 이른 시기부터 생활 각 영역과 생애주기 전체 각 단계별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실용적인 ‘생애설계(life planning)’를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생애주기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시한다. 생애주기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100세까지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맞게 연령을 재조정, 40~60세는 중년기, 80세 이상은 노년기로 정하고, 그 사이 60~80세를 장년기로 정의했다.

참여하고 정책실현 현장에서 일한 최성재 동문의 경험을 집대성했다. 저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재무나 건강 등 일부 영역에 치우친 설계가 아닌, 가능하면 이른 시기부터 생활 각 영역과 생애주기 전체 각 단계별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실용적인 ‘생애설계(life planning)’를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생애주기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시한다. 생애주기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100세까지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맞게 연령을 재조정, 40~60세는 중년기, 80세 이상은 노년기로 정하고, 그 사이 60~80세를 장년기로 정의했다.

프리콘

김종훈(건축69-73) 한미글로벌 회장
엘아이디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을 설립한 후 24년간 성장시켜 전 세계 58개국에 진출, 당당히 글로벌 10위권에 입성시킨 김종훈 동문이 2,50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경험에서 추출한 성공 공식을 정리했다. 대한민국 100대 CEO에 15번 선정된 경영자로서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 한 권에 응축돼 있다. 1930년대 초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102층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13개월 만에 지었던 일은 여전히 기적 같은 성공 사례로 남아 있다. 타워크레인조차 없었던 시절 그 일 가능성이었던 비결을 저자는 책의 한 장을 할애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건설 자재는 제때 도착하고, 불필요한 자재 운반을 없애고, 도착된 자재는 3일 안에 시공을 완료한다는 식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린(lean) 개념이 흥미롭다.

통일은 체제의 선택이다

이기우(해대원76-82)
전 주중한국대사관 홍보공사/한국학술정보



이기우 동문은 통일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체제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를 도외시하거나 그대로 두고 통일이 될 경우, 그 어떤 형태이든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는 완전히 이질적인 정치체제로서 혼합이 불가능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한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어정쩡한 체제로 통일하면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부문에서 불일치와 불협화음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서두르기보다는 남북한이 동질성을 상당히 회복한 후 하나의 체제와 제도,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이뤄지는 것이 인류 문명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우리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EXHIBITIONS

김병중 동문 수상 기념전

6월23일~7월 14일 청담동 갤러리 화이트윈



생명의 노래

김병중(회화74-81) 모교 동양화와 명예교수가 제1회 화이트윈 미술상 수상을 기념해 전시회를 개최한다.

‘생명의 노래’ 등 대표작이 한국 미학적 감성을 바탕으로 둔 동서양의 여러 방법론을 구사해 생명력 있다는 평을 받는다. 문의: 02-6006-9300

CONCERTS

이슬기 가야금독주회 ‘낙이불류Ⅲ’

7월 12일 장충동 국립국악원 우연당



전통과 창작음악을 넘나드는 가야금 주자 이슬기(국악99-03·사진) 동문이 한국 및 세계 초연 곡들을 선보인다. 이 동문은 국

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을 이수했으며 KBS국악대상 현악 부문을 수상했다. 어머니는 문재숙(국악72-76)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동생은 배우 이하늬(국악02-06) 동문으로 국악인 집안이다. 문의: 010-4795-1587



공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이롭고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및 산업 핵심 기술에 매진,
인류의 보다 윤택한 삶을 꿈 꾸고 있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



반도체 테스터



Fine Ceramic 기판



Diamond Tools



본사사옥(판교)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e-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최병민(외교71-75 깨끗한 나라 회장) 지난 5월 6일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제4대 이사장에 취임.



문형구(영문73-77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5월 12일 반부패협력대사에 임명.



박경재(심리74-78 전 동방문화대학원대 총장) 지난 5월 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 임명.



박인석(건축78-82 명지대 교수) 지난 5월 19일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지명.



추종연(외교79-83 전 주아르헨티나 대사) 지난 5월 7일 주콜롬비아 대사에 임명.



김학도(무역81-85 전 중소기업부 차관) 지난 5월 19일 임기 3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제18대 이사장에 취임.



안일한(무역81-85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지난 5월 8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임명.



강정식(외교81-86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지난 5월 7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



이상진(공법81-88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지난 5월 7일 주뉴질랜드 대사에 임명.



구윤철(경제82-86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난 5월 8일 국무조정실장에 임명.



김도인(공법82-88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지난 6월 4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회계담당 부원장에 임명.



조홍식(사법82-87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5월 12일 환경협력대사에 임명.



한기정(공법82-86 전 보험연구원장) 지난 6월 1일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 취임.



박경미(수학교육83-87 전 국회의원) 지난 5월 31일 청와대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에 임명.



최성일(경제83-87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지난 6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에 임명.



김근익(경제84-88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지난 6월 4일 금융감독원 총괄·경영 담당 부원장에 임명.



김비배(국제경제84-88 전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 지난 5월 12일 제주항공 대표이사에 선임.



정경미(신문84-88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본부장)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제5대 부원장에 임명.



윤창철(외교85-89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지난 5월 22일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에 임명.



조경호(서문85-92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난 5월 31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임명.



김도형(공법86-90 법무법인 원 변호사) 지난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제14대 회장에 취임.



정혜관(중문86-9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지난 5월 7일 주바레인 대사에 임명.



김중한(중문87-91 주 중국공사 참사관) 지난 5월 7일 주카메룬 대사에 임명.



임장원(경제87-94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경제주관) 지난 5월 13일 KBS 시사제작국장에 선임.



문승욱(행대원88-90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지난 5월 8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



이석주(경영88-92 제주항공 사장) 지난 5월 12일 AK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



박종원(국제경제90-97 전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지난 5월 22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에 취임.



임진(경제92-96 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지난 5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제2대 원장에 선임.



유경선(AMP 47기 유진그룹 회장) 지난 5월 8일 연세대총동문회 제30대 회장에 선출.



배홍기(AMP 55기 삼성KPMG 부대표) 지난 6월 1일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에 선임.



백현기(AMP 55기 삼성KPMG 부대표) 지난 6월 1일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에 선임.



김국찬(SPARC 16기 전 KB금융지주 사장) 지난 5월 19일 TV홈앤쇼핑 대표이사에 내정.



서장우(SPARC 23기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지난 5월 20일 국립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임명.



강신호(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본회 고문) 지난 5월 19일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제약 바



이오 부문) 수상자에 선정.



이어령(국문52-56 전 문화부 장관·본회 고문) 지난 5월 14일 재단법인 유민문화재단 이수여하는 제11회 흥



진기 창조인상 특별상 수상.



김용포(법학61-65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지난 5월 27일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수



상식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포장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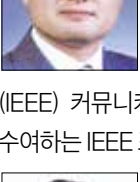
강창일(국사학71-80 전 국회의원) 지난 5월 30일 불기 2564년 조계종 불자대상 수상.



박용만(경영73-78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5월 18일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0 벤 플리



트상' 수상기관에 선정.



우정원(물리75-79 이화여대 교수) 지난 5월 29일 이화여대 창립 134주년 기념식에서 제 16회 이화학술상 수상.



이정우(전자공학84-88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지난 5월 29일 국내 최초로 국제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 커뮤니케이션 소사이어티에서 수여하는 IEEE 프레드 엘리릭상 수상.



방시혁(미학91-97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지난 6월 2일 포니정재단이 수여하는 제 14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에 선정.



조은영(의학99-05 충남대 병원 교수) 지난 5월 2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20년 국가예방법집중사업 유공

유민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1회 흥진기 창조인상(과학기술 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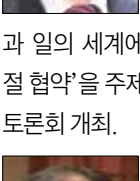
행사



구상진(법학68-7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주간 철저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이광택(행정68-75 한국ILO협회회장·국민대 명예교수)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100주년 선언과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을 주제로 2020 국제노동 정책 토론회 개최.



박병원(법학71-75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지난 5월 29일 서울 충무로 포럼 위공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국가전략 노선 전환과 북방경제 비전'을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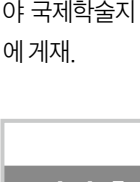
조찬세미나 개최.



김광수(미생물73-77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과 교수) 최근 세계 최초로 환자 자신의 세포로 만든 줄기 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 김 동문의 연구결과는 5월 14일 의학분야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 김 동문의 연구결과는 5월 14일 의학분야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

삶과 추억

모교 도서관에 2억 쾌척한 고 정인식 형님

백기덕(상학58-64) 동문

인식이 큰형님! 어찌 그리 황망히 떠나셨나요! 몇 해 전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요즘은 그 병은 병도 아니라고 위로 말씀을 드린 게 잊고 계신데... 상대 58회 입학 60주년 기념문집 '함께한 60년 삶의 발자취'에 보내주신 원고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어찌 그리 홀연히 떠나셨나요!

70~80년대 한국경제발전의 선발대로 뉴욕에 파견된 30여 명의 실업계, 금융계 58동기들이 맨해튼 밤거리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를 소리쳐 부르던 노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간다는 말도 없이 어찌 그리 표현히 떠나신 거요!

형님은 58동기들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한해가 멀다 하고 매해 귀국하던 중 2년 전 동기들과 어울려 형님이 다니던 경북고등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길을 거닐며 추억에 잠기시던 모습이 선한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형님은 우리 58동기 누구보다도 먼저 60년대에 뉴욕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당시 뉴욕 주재원들이 흔히 말하던 '만세'를 부르고 뉴욕에 주저앉아 삶의 터전을 잡으시어 맨해튼의 중심가에 '사랑은 자물쇠도 열 수 있다(Love laughs at locksmiths)'는 생각으로 열쇠 가게를 내고 뉴욕커들의 열쇠쟁이(Locksmith)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뉴욕커들은 열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듯 허리춤에 열쇠를 줄줄이 달고 다니던 모습에 형님은 우리가 은행창구에서 달러를 세는 동안 상대 출신답게 야채가게 대신 열쇠장이 되신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만리타국에서 고생고생하시며 이룬 조그만 열쇠 가게를 한국진출 기업은 물론 미국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의 금고설치와 관리 등 금고 전문회사(ALCO Lock & Safe, Inc)로 키워 맨해튼 중심부에서 우뚝 서시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빈손으로 간다는데 형님은 이름을 남기시었습니다. 미국에서 전원주택을 하나 구입할 수도 있는 큰 돈 2억원을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에 기부하시어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에 '정인식 박숙자' 소극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성낙인 총장 등이 참석한 감사패 증정식에서 "모교인 서울대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번 도서관 기금으로 후배들이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인식이 큰 형님! 형님은 서울대 동문들의 모임인 뉴욕골든클럽 회장, 서울대 미주동창회 뉴욕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모교 발전을 후원하였음은 물론 58동기들의 '뉴욕 큰형님(경상도 출신인 정 동문을 부르는 동기들의 애칭)'으로 그간 미국을 방문하는 동기들에 길잡이도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뉴욕에 마지막 남은 형님이 떠나게 되니 찬란했던 58회의 뉴욕은 끝나게 되었으니 그 시절이 그림기만 합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맨해튼 34가 코리아 스트리트(Korea Street)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서 매주 만나는 상대 선후배 모임에 불러 같이 마시던 막걸리 맛을 어찌 잊겠습니까! 이제 뉴욕에 가도 만날 사람도 기다려줄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의 인연처(因緣處)를 정하는 49일째 되는 날 49재(四十九齋)를 올린다는데 형님이 눈을 감으신 4월 2일의 49일째 7제날인 5월 21일에는 부디 좋은 세상에 환생하시옵소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는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하였다지요. 뉴욕 큰형님! 뉴욕에서 형님과 1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무덤에 갈 때까지 입 밖에 내놓지 않기로 모의한 일, 잊지 않으셨지요? 우리 다음 세상에 서 만나 웃으며 이야기 하자고요.



Live Smart

쓸데없는 거품은 비우고
유해한 성분은 버리고
사용의 불편함은 없애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자

스마트가 별건가? 이렇게 스마트지!
합리적이고 가치있는 당신의
일상을 위해!

생활을
새롭게. 즐겁게. 스마트하게.

모나리자

S쌍용C&B

나는 코디를 씹니다

피부가 민감한 내겐
화장지도 건강이 기준이니까!

- #독일 더마테스트 최고등급
- #무형광
- #펄프는 100% 천연펄프
- #직접 찾은 로컬 성분 함유



CODI의 새로운 얼굴,
LIFESTYLE CURATOR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회장단·자문위원·논설위원·상임이사·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0. 4. 24~2020. 5.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하시면		회비 납부 방법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익년도 포켓수첩(또는 탁상달력) 제공	구 분	입 회 비	연 회 비	평 생 회 비
경조 서비스 (실비 부담)	건강검진 우대	일반회원	10,000원	30,000원	300,000원 (65세 이상은 200,000원)
		이사회원	-	100,000원	700,000원 (65세 이상은 500,000원)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계좌 : 다음 계좌 중 하나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입학년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서울대학교총동창회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고문		
△강신호 의대 46	10만원	
△강신영 교대 48	10만원	
△김덕주 법대 52	10만원	
△이금기 약대 55	10만원	
△이수빈 상대 57	10만원	
△홍성대 문리대 57	10만원	
자문위원		
△강신주 사대 51	100만원	
△변상현 의대 51	50만원	
△박형기 치대 55	100만원	
명예부회장		
△민명술 AMP 42	30만원	
부회장		
△김명자 문리대 62	100만원	
△이상운 공대 70	100만원	
△허수영 공대 70	100만원	
△양호승 사화대 74	100만원	
△김영호 사대 80	100만원	
논설위원		
△김광덕 사화대 82	10만원	
△전경하 사대 87	10만원	

각 단대 및 특별과정동창회장

△곽병선 사대동창회장	20만원
△최홍규 교대원동창회장	20만원
△박규홍 AIC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 이사

△김경만 자연대 88	△강다현 FNP 5
△강상덕 대학원 91	△강석호 문리대 66
△강순선 농대 56	△강정수 FNP 2
△강준구 상대 62	△경규영 공대 00
△고병철 사대 61	△곽용태 미대 61
△구자홍 문리대 56	△권오주 ALP 14
△권경환 자연대 92	△권주팔 경영대 86
△김교정 사대 54	△김기천 상대 57
△김기학 상대 55	△김기휘 상대 66
△김내성 문리대 55	△김달식 법대 53
△김동렬 상대 57	△김두환 법대 53
△김명주 치대 95	△김무조 공대 57
△김문수 문리대 59	△김민경 ABKI 10
△김병진 HPM 39	△김석만 문리대 57줄
△김성호 수의대 58	△김성기 HPM 37
△김성순 공대 53	△김성준 공대 70
△김소산 미대 63	△김수영 농생대 84
△김소현 ABKI 6	△김승중 법대 68
△김이범 음대 00	△김연식 사대 51
△김영삼 자연대 91	△김영식 FNP 4
△김용연 문리대 56	△김용호 법대 81
△김용훈 AMPFRI 35	△김웅배 농대 57
△김원태 공대 66	△김윤용 ABKI 9
△김인기 수의대 55	△김일철 문리대 53
△김임준 ALP 28	△김재형 미대 02
△김정옥 문리대 51	△김정호 농대 73
△김정영 인문대 72	△김종서 ACAD 86
△김종운 GLP 39	△김준도 AFP 18
△김지호 공대 55	△김창식 문리대 70
△김정환 사대 55	△김태우 ACPMP 10
△김현주 AIP 54	△김형란 가정대 82줄
△김희숙 KFL 21	△남궁연 문리대 52
△류근관 사화대 79	△류동렬 사대 71
△맹선재 문리대 52	△민재근 GLP 37
△민해홍 ASP 9	△박경태 사화대 74
△박길천 공대 78	△박무용 상대 64
△박수열 ABKI 7	△박승태 사대 59줄
△박영국 법대 70	△박영수 AIP 53
△박영순 상대 60	△박유석 GLP 38
△박윤규 법대 72	△박정훈 BCP 20
△박종구 공대 79줄	△박준근 공대 63
△박창선 공대 61	△박태영 법대 61
△박평열 공대 75	△박해광 GLP 32
△박형희 AIP 61	△박희웅 의대 54
△박죽운 행대원 64	△박경덕 FNP 11
△백순지 치대 63	△백승일 경전원 06
△변용복 ACAD 85	△복성규 사대 70
△서대석 문리대 61	△서대용 AIP 61
△서정진 약대 61	△석희호 공대 55
△성해경 사대 53	△손봉호 문리대 57
△손창원 자연대 78줄	△송기국 인문대 76

△신건희 의대 02	△신아영 GLP 32
△신준영 법대 88	△신찬영 약대 87
△신효철 공대 71줄	△신효현 법대 60
△심우진 경전원 09	△심재기 문리대 56
△심현숙 FIP 16	△안덕수 음대 60
△안병근 치대 62	△안영인 자연대 84
△안재영 공대 62	△양성철 문리대 58
△양승원 공대 96	△양승학 AWASB 1
△양주석 AMP 87	△임용의 의대 62
△염대운 약대 59	△예길춘 공대 61
△오상섭 인문대 82	△오인섭 문리대 60
△오 준 인문대 74	△오현숙 ASP 30
△오희선 간호대 94	△옥태준 경전원 13
△유방환 의대 55	△유종하 문리대 55
△윤강호 SGS 35	△윤영석 공대 60
△윤유진 경영대 97	△윤유현 ACPMP 13
△윤인식 사대 65	△윤통섭 SPARC 35
△이근영 가정대77줄	△이근형 FNP 9
△이기성 문리대 64	△이기춘 사대 61
△이삼철 미대 58	△이성현 AIP 56
△이수영 법대 64	△이승우 공대 99
△이영주 HPM 41	△이우홍 AFB 17
△이은방 약대 55	△이은승 치대 10
△이은주 AMP 82	△이인원 신대원 68
△이임수 법대 60	△이임택 공대 61
△이장우 문리대 57	△이재명 AMP 86
△이정갑 미대 55	△이정복 법대 76
△이정윤 법대 61	△이종구 의대 76
△이종찬 SPARC 36	△이준우 FIP 14
△이창우 수의대 63	△이창재 농생대 96
△이초식 문리대 54	△이춘원 사대 57
△이충양 문리대 65	△이충윤 자연대 03
△이한현 HPM 40	△이형규 ABKI 6
△임광순 문리대 68	△임남재 의대 57
△임덕규 법대 73	△임송자 미대 59
△임용운 공대 02	△임창모 약대 64
△장창남 경전원 17	△전도영 사대원 68
△전병관 법대 84	△전상직 ACAD 84
△전용수 상대 62	△전종일 공대 62
△정광호 미대 60	△정대유 미대 61
△정성용 문리대 71	△정성창 치대 61
△정시국 ASP 35	△정원호 HPM 36
△정재욱 미대 99	△정태익 법대 61
△정태현 GLP 10	△조강국 공대 82
△조만희 공대 88	△조상희 상대 62
△조영진 공대 86	△조우현 행대원72줄
△조해영 자연대 96	△주숙연 HPM 11
△진주현 경전원 15	△채현교 미대 90
△최규수 공대 60	△최명자 약대 62
△최영일 FNP 9	△최예환 농대 59
△최창일 미대 60	△최종만 문리대 57
△최철일 문리대 59	△탁성희 간호대 86
△편명철 ACPMP 15	△하계상 공대 78줄
△한갑현 문리대 54	△김중성 공대 68
△한현수 사대 60	△한원석 HPM 28
△홍석필 사대 54	△홍선경 문리대67줄
△홍성일 공대 54	△홍성화 사대 59
△황국희 문리대 62	

평생회비 - 일반

△김구현 문리대 50	△김동원 보대원 91
△김두겸 사대 17	△김선근 문리대 57
△김성민 의대 93	△김세진 자연대 13
△김세한 인문대 84	△김연수 사대 04
△김숙희 사대 60	△김 열 의대 94
△김영철 문리대 67	△김예현 공대 07
△김옥중 법대 86	△김재홍 사대 88
△김정구 의대 70	△김종진 치대 01
△김준호 AMP 38	△김태현 의대 91
△김한윤 자연대 10	△김효숙 미대 63
△노태선 사대 80줄	△류근호 약대 86
△박상권 SGS 33	△박원의 사화대 06
△박기현 가정대 85	△박준수 인문대 82
△백순진 자연대 96	△서사삼 ACAD 66
△서상교 의대 01	△신진우 공대 11
△양한규 경영대 94	△이원달 대학원 73
△오동일 공대 11	△오창훈 과대 96
△오태석 치대 77	△윤성만 공대 86
△윤호준 인문대 81	△이기훈 FNP 9

△이명옥 사대 71줄	△이상환 농생대 99
△이석영 공대 98	△이석원 사대 15
△이영진 AMP 78	△이영훈 자연대 72
△이원강 ACPMP 15	△이종영 인문대 84
△임희선 공대 07	△장인현 법대 70
△장효희 문리대 52	△정우강 상대 61
△장재교 공대 89	△정준호 ACAD 86
△정철영 약대 65	△조배숙 법대 75
△조준호 약대 78	△최대수 AMPFRI 40
△최대업 AMP 31	△최양자 사대 68줄
△최인섭 치대 70	△최효진 경영대 02
△하동원 상대 62	△하윤철 수의대 96
△하현숙 치대 12	△허영철 공대 70
△허 은 공대 13	△하재현 공대 63줄
△황계윤 ACAD 73	

연회비 - 이사

◆인문대	△강동현 83	△방문규 81
△신동수 69	△한봉희 77	
◆사회대	△김 철 19	△김태환 83
△박근제 74	△사석인 73	△손병두 83
△이완희 82	△이지현 98	
◆자연대	△석희용 82	△이형봉 79
△정삼국 76		
◆간호대	△김명숙 61	△박명자56줄
△임남영 67	△최병남 67	
◆경영대	△고정석 76	△김두만 81
△사정희 78	△안호성 00	△한갑희 78
◆공대	△고석원 54	△구현모 81
△김동규 72	△김병국 76	△김병주 59
△김인식 56	△김종식 77	△김종욱 61
△김지호 55	△김철빈 67	△김충남 62
△박구원 69	△박칠립 59	△석영대 55
△신재철 66	△신호순 57	△우무성65줄
△유복모 65	△유상신 61	△유재영 07
△윤종섭 84	△이병호 63	△이순광 59
△이승복 61	△이익용 55	△이억호 74
△이정영 53	△이주희 52	△이창범 77
△이해균 91	△조재선 87	△진인호79줄
△천성대 66	△최금영 64	△최영식 47
△한창환 56	△한철중 55	△허성구 69
◆농대	△강순선 56	△권태길 57
△김남현 74	△김병운 69	△김석현 62
△김완기 65	△김옥성 62	△김진수 65
△김태봉 81	△김태수 66	△김홍진 62
△김훈동 63	△박진구 60	△박창호 58
△박희재 60	△사원준 67	△김진준 76
△우건석 55	△이석우 59	△이영배 61
△이종택 67	△이혜근 67	△임병주 65
△정현석 63	△채수근 74	△최환희 63
△한상찬 59	△허만호 82	△박병영 89
△이봉훈 82		

◆문리대	△곽영찬 70	△권인혁 56
△권혁조 63	△김내성55	△김성수 65
△김옥남 52	△김용남54	△김유진 61
△김재실 63	△김주연60	△문영모 60
△박창업 66	△심재기56	△양갑석 57
△오인섭 60	△윤병대56	△이상석 68
△이은상 61	△이장우 57	△이정길 59
△이충양 65	△이형숙 65	△이희경 59
△임래규 65	△임종대 63	△임효재 61
△장영태 64	△정찬용 54	△조동일66줄
△최기철 62	△최병두 54	△최성재 66
△최연상 56	△홍두표 55	△황윤석 59
△황하복 56		

◆미대	△김현영 94	△이설자 61
△이정갑 55	△이철주 61	△정광호 60
◆법대	△강용석 88	△곽현수 72
△김두환 53	△노장기 59	△명노연 98
△목요상 55	△민병환 86	△민수광 60
△박영연 69	△박응식 85	△박환승 83
△사상희 68	△송병대 67	△송태범 68
△신규태 56	△신호현 60	△성한준 59
△유두환 58	△유영철 60	△윤익수 53
△이승환 55	△이재창 56	△임종훈 73
△장명하 53	△장재식 52	△정궁식 81
△정주석 61	△정태익 61	△조관행 75
△최동섭 55	△최영일 59	△황보성석50
◆사대	△구성희 55	△구 정 60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3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20년 단대별 누적 회비납부현황

총 5,695명 *5월 23일 현재

단대	누적 회비납부현황
인문대	104
사회대	201
자연대	123
간호대	33
경영대	101
공대	704
농대	441
문리대	348
미대	71
법대	481
사대	447
상대	323
생활대	31
수의대	101
약대	174
음대	95
의대	194
자유전원	6
치대	175
대학원	484
특별과정	1058

△김경애 74	△김성대 54	△김양자 61
△김억관 67	△김연식 51	△김영숙 54
△김옥기 54	△김윤미 94	△김인기 77
△김종권71줄	△박홍일 60	△서원임 58
△성해경 53	△엄환섭 61	△오대겸 83
△우종욱 60	△윤정일 62	△이동호 59
△이상석 59	△이용학 57	△이현진 01
△임상순 60	△장영진 84	△정상박 54
△정지오 73줄	△최기숙 65	△최래욱 60
△최재진 55	△한홍승 65	
◆상대	△고일성 54	△권계홍 58
△김기현 61	△김동렬 57	△김성규 57
△김순동 56	△김천식 58	△김하두 64
△김효석 68	△박성석 61	△박현주 54
△유삼태 70	△이기용 56	△이상학 59
△이승섭 50	△이정호 56	△이한희 54
△정재택 58	△정주호 65	△조병하 59
◆생활대	△김혜경 85	△김보람 98
△송기철 95		
◆수의대	△김성수 64	△김인기 55
△이도필 49	△정동혁 79	△정자영 84
△정희래 60	△최윤석 52	△최준우 00
◆약대	△고주석 63	△김기슬 71
△김의영 80	△김진훈 71	△명석상 65
△서정진 61	△손인자 69	△이석만 58
△이세민 56	△이정석 75	△임상웅 60
△조용현 74	△주명희 81	△지현석 56
◆음대	△김금수 76	△김용보 58
△김정규 56	△문지형 93	△백병동 55
△최구혜 61	△홍명희 65	△홍성림 01
△황광섭 63		
◆의대	△김수경 81	△김영균 43
△안병현 67	△이병윤 55	△이종구 76
△이종선 62	△전기평 06	△정동철 54
△한홍우 56		
◆치대	△김병찬 69	△김병호 56
△민병덕 64	△서기환 74	△안 박 60
△이윤상 59	△이은승 10	△정성창 61
△정효수 58	△조경석 79	△한기식 65
◆대학원	△이시문81줄	
◆경전원	△강문정 14	△김민석 14
△박상우 06	△현효영 16	
◆국대원	△신동연 03	
◆보대원	△박남용 02	
◆행대원	△권순일 10	△김성규 70
△김용동 81	△김주식 75	△김준철 02
△안태백 64	△왕항래 08	△윤여동78줄
△이춘희 79	△장주호 69줄	△정석구 15
△최종술75줄		

◆한대원	△박상진 94	
◆AMP	△김광용 85	△김덕신 83
△김정우 84	△김혜경 85	△도관홍 87
△박순관 8	△송오현 81	△오형근 48
△원희정 84	△유병희 86	△이갑수 82
△이국노 61	△이규식 54	△이내훈 87
△이윤로 50	△이호수 35	△황진하 72
◆AIP	△김교윤 55	△김소희 57
△안병수 9	△안재명 42	△양현주 53
△이대만 24	△이 석 53	△이창범 22
△전정희 60	△조덕력 60	
◆ACAD	△김경호 82	△김부근 31
△박경철 82	△손창영 88	△장기윤 72
△정문영 81	△조홍규 26	△홍석원 83
◆ABP	△이수연 23	
◆SGS	△권오신 5	△김재준 33
△이경민 19	△이상인 31	△이철구 34
△정홍섭 32		
◆APC	△김복숙 3	
◆HPM	△박인석 40	△신상윤 39
△안오원 6	△장원동 41	△정원호 36
△최기용 40	△하명기 36	△황규정 38
◆AMPP	△강영송 19	△김진만 19
△이동중 17	△이연송 20	△홍창식 12
△황태익 20		
◆AIC	△권성욱 8	△서민웅 7
◆AFB	△김건용 19	△김낙구 18
△장우석 17		
◆AMPFRI	△강태호 22	△배원열 40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두산발렛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하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초혼·재혼·노블레스 | 1 듀오

결혼, 답을 듀오

결혼정보업계 1위
(2017년 매출액 기준)

내가 너무
눈이
높은걸까?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듀오
1577-8333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 080031



(사)한국쌀전업농경상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성 종 경 (AWASB. 웰에이징시니어산업최고위 5기)

- 농협지도자교육원 제270기 교육과정 수료
- 경남새마을연수원주관 새마을지도자반 정신교육 이수
- 前 성산리 지도자 4년
- 前 성산리 이장 12년
-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전산교육 8주간 수료
- 前 창녕군병 신생연합회 회장
- 前 이방농협 이사
- 前 바르게살기운동 창녕군협의회 이사
- 前 (사)한국쌀전업농 창녕군 연합회 회장

- 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前 이방면체육회 회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효(孝)와 예(禮) 모범가정 표창
- 바르게살기운동 중앙연합회 표창 수여
- 미래,창조,융합 국가지도자 과정수료 (제8기)
- 前 이방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現 (사)한국쌀전업농경상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bl**bio**
medicine for a better life

이중항체 신약개발 Leading Company

*Dual targeting of angiogenesis
Dual targeting of IO molecules
Immune cell triggering T-cell engagers
BBB shuttl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12번길 16, 2층 | 031 8018 9800 | www.ablbio.com

명사칼럼

입학 50주년, 그리고 VERITAS LUX MEA



김도연
재료공학70-74
울산공업대학 이사장
모교 명예교수

지난 5월 중순, 총동창회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은 조금 뜻밖이었다. ‘입학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이었다. 총동창회에서 필자와 같은 1970년 입학생 모두에게 보낸 소식일 것인데, 그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모교의 배지(Badge)를 신청하면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스스로가 총동창회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 ‘서울대학교’란 이름 덕분에 누린 것이 더 많은 삶이었으니 오히려 필자가 동창회와 대학에 감사할 일이다. 여하튼 반세기, 50년이 그렇게 흘렀다. 1인당 연 소득이 250달러였던 1970년에 비하면, 지표상으로는 현재 100배 이상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입학했을 때, 학교만이 아니라 거리 여기저기 붙어 있던 ‘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으로 희망의 70년대를 이룩하자’는 표어가 생각난다. 소득 1,000달러를 달성한 것은 1978년이었다.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배지는 필수품이었다. 전제 고등학교 졸업생의 10%만이 대학에 진학하던 시절이었으니, 대학생이란 신분이 갖는 무게가 지금과는 달랐다.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서울대학교라는 가치가 함께 했으니 스스로를 자랑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버스 탈 때 배지를 달고 있어야 대학생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를 필수품으로 여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어쨌건 배지만 있으면 어디서나 대학생으로 인정해 주던 때니 가짜 노릇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가짜 학생의 결혼 주례까지 서 주었다는 교수 이야기도 있었다.

총동창회 편지에서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배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

다. 월계관을 가로지르는 펜과 횃불, 그리고 가운데 놓인 책자의 왼쪽 페이지에 쓰인 VERITAS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의 LUX MEA가 반가웠다. 그런데 사실 이 배지를 처음 받았을 때인 50년 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생경한 것은 우리 문화 및 전통과 전혀 무관한 라틴어다. 이 글을 책자의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즉 VERI LUX TAS MEA로 읽는 것이 맞다는 동료들도 많았다. VERITAS LUX MEA가 ‘진리는 나의 빛’이란 설명은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기억에 없다.

경성제국대학의 틀을 벗고 1946년 미군정 시절에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만든 배지로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라틴어는 서양서도 낯선 고어 모교문장엔 우리 전통 담기를

VERITASLUXMEA는 당시 일했던 미국인 해리 앤스테드 초대 총장의 아이디어였을 것이다. 여하튼 학교 배지에서 라틴어를 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영미계 대학의 경우다. 독일도 프랑스도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대학 배지나 문장에 라틴어의 관행은 없다. 대만국립대학은 서울대학교와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일제하의 대만제국대학 시절을 모두 포함해 스스로의 역사를 1928년에 시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대학 배지에는 애국애인(愛國愛人) 그리고 돈품려학(敦品勵學)의 여덟 글자가 쓰여 있다.

VERITAS는 1636년 개교한 하버드 대학의 문장(紋章)에 새겨진 글이다. 아마도 초대 총장께서는 서울대가 하버드 같은 명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미국에는 하버드 외에도 대학 문장에 라틴어를 쓰는 대학이 많다. MIT를 상징하는 문장에는 책을 읽고 있는 학인(學人)과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장인(匠人)이 함께 하고 있다. 교육목표가 두뇌로 지식가치를 만드는 과학자와 손으로 경제가치를 만드는 기술자 육성

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MENS ET MANUS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머리와 손’을 의미하는 라틴어다. 실제로 지식을 만드는 과학자는 국격(國格)을 높이지만 상품을 만드는 기술자는 국부(國富)를 쌓는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는 대부분의 서양인들도 읽는 순서조차 모르는 고어(古語)가 된 듯싶다. 인터넷에는 프린스턴대학에 대한 질문이 올라 있는데, 대학 문장에 적혀 있는 VET TES EN NOV TAM TUM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이 흥미로운데, 그렇게 뒷줄에서 아랫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왼쪽 페이지에서 오른쪽으로 VET NOV TES TAM EN TUM으로 읽는 것이 맞으며 이는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VERI와 TAS가 아니고 VERITAS인 것처럼 TESTAMENTUM이 한 단어라는 설명도 함께 있다.

대학의 보수성은 지켜야 할 가치지만 이제 라틴어는 이렇게 잊혀진 언어가 되었고 일반인에게는 고전(古典)으로서의 의미도 사라진 듯싶다. 그런 의미에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문장은 조금 신선했다. 이 대학의 모토는 역시 라틴어로 FIAT LUX인데, 이에도 불구하고 대학 문장에는 이를 영어로 해석한 LET THERE BE LIGHT로 적혀 있다. 여하튼 미국 대학들의 문장에는 대부분 그들의 사회의 종교적 전통이 드러나 있으며, 그런 이유로 라틴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VERITAS도 신약 성서 요한 복음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LUX MEA도 마찬가지다.

총동창회에서 보내준 반가운 소식 속의 배지를 접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배지 속의 VERITASLUXMEA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한글로 ‘진리는 나의 빛’이라 써도 좋겠다. 아니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면서 서울대학교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새로운 문구(文句)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동창들을 비롯한 대학구성원 모두가 고민할 일이다.

만평

이원복 건축66입 덕성여대 명예교수



느티나무 칼럼

BC(Before Corona)에서 AC(After Corona)로



홍지영
불문89-93
SBS 정책문화팀 선임기자

대학생 아들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인터넷 수업을 듣는다. 사이버 강의가 끝나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를 꺼낸다. 안주거리로 과자까지 주섬주섬 챙겨 들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간다. 그리고는 컴퓨터 카메라를 향해 건배를 외치면서 친구들과 채팅을 즐긴다.

코로나를 피해 잠시 도쿄에서 귀국한 한 기업인은 하루에 5, 6회 현지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업무를 지시한다. 퇴근 후에는 귀국한 유학생 자녀들과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철들면서부터 대화는 커녕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던 자녀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된다.

애프터 코로나, AC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풍경이다. 코로나는 컴퓨터와 핸드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 동시에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이런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종착점을 모른다. 한순간의 방역 성과에 기뻐할 수도 없다.

생필품 사재기로 마켓에서 난리가 난 선진국들과 달리 인터넷 쇼핑 강국인 우리나라는 집 앞에 배달된 싱싱한 식재료를 시간에 맞춰 챙기기만 하면 된다면서 뿌듯했던 것도 잠시. 총알 배송의 중심에서 있던 물류센터가 순식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새로운 원인으로 눈총을 받게 됐다. 열악한 작업 환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다. 미래 예측도 불가능해졌다. 한 달 뒤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질서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보건과 위생 선진국으로 손꼽혔던 일본은 미숙한 대응으로 정권이 흔들리고, ‘복지 교과서’라던 유럽은 의료 체계가 맥없이 무너지며 유럽형 복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가 불러온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강의 기적, 수출경제, IT 강국 같은 과거의 성취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사하는 새로운 산업 질서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IEEE & SAE International
COVID-19 관련 자료 무료 제공 캠페인

IEEE와 SAE International은 COVID-19 극복을 위해 전세계 모든 구독 기관에 COVID-19 관련 문헌을 무료 공개합니다.

COVID-19 극복을 위해 IEEE와 SAE International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EE Xplore 접속 후 검색창에 COVID-19 입력
<https://ieeexplore.ieee.org/Xplore/home.jsp>
- SAE International의 COVID-19 관련 자료 내용 접속 링크
<https://saemobilus.sae.org/help/covid-19/>



Authorized Dealer in Korea



키티스 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대표 홍영표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종신이사)

Tel. 02.3474.5290

Web. www.kitis.co.kr

정주영과 워렌 버핏

녹두거리에서



김화진
수학79-83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 두 인물은 성공적인 기업인이면서 절제와 나눔의 철학을 실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버핏은 1958년에 산 집에서 아직도 사는데 현재 그 집값은 버크셔 주식 5주 가격 정도다. 그러면서 2006년 이후로 주식 30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아산도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무수한 사회사업을 펼쳤다. 특히 1977년에는 500억원 가치의 현대건설 주식을 기부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당시 정부의 1년 사회복지예산이 195억 3,400만원이었다. 아산과 버핏은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필자에게는 비교를 통한 기능적 수업론 검증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인물들이다. 기업지배구조 분야에 많은 이론과 사례도 있지만 아산과 버핏처럼 그를 현실에 구현한 생생한 실체들이 가장 좋은 교과서다.

우선 버핏은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헛일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다. 굳이 책과 강의를 통해 공부할 필요가 없다. 버핏을 따라 하면 된다. 세계 모든 기업의 경영자가 버핏같이 유능하고 윤리적이면 지배구조 연구는 필요없다.

그런데 버핏의 버크셔 지배구조는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들과 반대다. 소유가 집중되어 있고 차등의결권제도까지 채택하고 있다. 이사회도 버핏 자신과 친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 재임 고령자들이다. 90세 이상 3인 포함 평균 77세다. 이사회는 일 년에 고작 두세 번 하고 사외이사들은 우리말로 ‘거수기’들이다. 아들에게 이사회 의장을 물려줄거라고 한다. 그러면 버크셔는 나쁜 기업이어야 하는데 사업만 잘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주가는 주당 거의 4억원이다.

지금 국내 가족경영 대기업에서는 3세, 4세 승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큰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 승계 자체에 비우호적인 사회 분위기와 승계하는 사업의 복잡성, 디지털화 시대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것들이 이들을 압박한다. 두꺼운 교과서보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멘토가 더 절실하다.

아산은 지금에 비하면 거의 원시시대라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해도 좋을 만큼 미성숙한 사회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5위권 기업을 3개나 일구면서도 한 번도 큰 사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사실 버핏은 아산에 비하면 천국에서 사업을 한 셈이다. 아산은 격동기에 정치권력으로부터 갖은 수모도 당했지만 권력이 문제삼을 만한 허점은 없었다. 압축성장 시대에도 그랬고 서슬이 퍼랬던 신군부의 5공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정직하게 사업을 했다는 의미가 된다. 아산은 정직의 부산물인 손해와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에너지와 혁신 자산

을 갖고 있었다.

멘토는 윤리적 우월성도 갖추어야 한다. 아산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인 이유는 업적뿐 아니라 윤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산은 기업을 하는 목적과 국가 사회적 가치에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목적과 가치에 확신을 갖는 경우 지배구조 문제는 애당초 생기지도 않는다. 1950~60년대 미국에서 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기여로 이해될 때 경영자 통제 문제가 없었던 것과 같다.

산도 가까이 있으면 크기와 높이를 잘

모르고 우리는 언제나 해외에서 롤모델 찾기에 열중한다. 그러나 버핏같은 외국 경영자가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 환경에서 차세대에 좌표 역할을 해주기는 어렵다. 한국 역사에서 그런 인물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아산에 대한 조명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김 동문은 모교 수학과 졸업 후 원현대 법학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뉴욕주 변호사, 고려대 경영대 겸임교수 등을 지내며 전공 주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대학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대학 관련 글을 썼다. 저서로 ‘스탠퍼드가 하버드에 간 이유’ 영화 에세이 ‘스크린 뒤에는’ 등을 냈다.

나를 비우는 고랭지 캠핑 훈련



동문기고
박상설
기계공학49졸
캠프나비 호스트
아시아엔 칼럼니스트

큰 산은 골짜기를 안으로 숨기고 하늘과 맞닿은 숲 능선으로 당당하다. 샘골에 들면 생의 잠언(箴言)들이 계곡, 숲, 안개, 바람을 스치며 스민다. 여름을 보내는 행복 잠언시집을 꼭 품고 있다. 그렇다. 되새기고 싶은 시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산천이 예전 같지 않다. 어느 산골에 가도 펜션, 카페, 술집이 즐비해 옛 정취는 보기 어렵다. TV, 신문도 없는 적막한 오지가 그림다. 캠프나비(Camp nabe) 주말 레저 농원은 샘골에 있다. 흥천에서 양양으로

이은 56년 국도를 따라 오대산 북쪽에 이르면 북한강의 넓이가 불과 20~30m의 폭으로 좁아진다. 이쯤에서 다리를 건너 셋길로 한 구비 돌아들면 거짓말 같은 원시의 골짜기 숨어있다.

이곳은 험준한 백두대간과 해발 1,500m의 오대산의 수많은 골짜기에서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북한강의 발원지 중 한 곳으로 해발 600m의 청정고랭지 샘골이다. 인근에는 술한 비경을 거느린 숨어있는 계곡과 숲이 즐비하다.

샘골에는 나의 비닐하우스 농막 캠프 외에는 집 한 채 없는 겹겹이 산으로 감춰진 골짜기다. 나는 늘 하던 버릇대로 5,000분의 1 정밀지도를 펴들고 숨어있는 골짜기를 찾아 떠돈다. 숲, 계곡마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며 부산을 떠난다. 산속은 어딜 가도 새롭고 바라는 목적지는 없다. 해맑은 냇물소리 돌아서지 못하게 나를 잡는다.

삶은 숲에 순응하는 싸움인가? 숲, 계곡은 홀로 제 스스로 있다. 그들은 끝끝내 침묵의 무서움이 가득하고 찾아든 나에게 느슨한 헐거움으로 모른 채 한다. 숲은 세상의 의미를 낚아 올리는 소리로 수근거린다.

인간들의 돈벌이 성공학이 쓸쓸하다. 만드는 문화 아닌 기르는 문화... 숲이 키우는 문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문화는 어디에 사는가? 이날 이때껏 살아오면서 나와의 불화접점에서 싸움은 치열했다. 삶은 죽음의 덧없음을 잊기 위한 싸움인가?

숲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운다. 모든 인간들은 뺨가루로 산에 당도해 삶을 죽음과 바꾼다. 삶과 죽음은 해 뜨는 것과 날이 저무는 것과도 같다. 인간들은 덧없는 것들의 영원함에 끝끝내 속고 사는 멍청자인가? 죽음을 예비하고 떠나는 이유를 묻지 말자. 숲은 그대로이지만 나는 숲에 신경 쓴다. 숲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잔잔한 생각들을 바람에 포개며 나마

저 숲이 되게 한다. 날이면 날마다 속수무책으로 바빠 돌아가는 인간들... 뜻 모르고 해매는 역사의 도구에 불과한 인간상...

사람의 몸은 이미 사위어 가는 풍화에 있다. 모든 인간은 그러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망은 몸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마음의 편안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의 삶이다. 육체와 정신의 문제뿐 아니라 생계와 인간 욕구들이 총체적으로 서로 엉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력(功力)을 다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이것은

지식이나 이치적으로 또는 가족구성원을 이해 시켜 달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원초적 고민이 삶의 밑바닥까지 헤집고 왔는데도 우리의 의식은 아직 그것을 헤쳐 나갈 마땅한 처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집구석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좋은’과 ‘행복’은 집안에 살지 않는다.

그 갈등의 해결책으로 인습과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편한 삶과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 나의 경험으로는 샘골과 같은 산간벽지를 자주 찾거나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비우는 고랭지 캠핑훈련을 우둔한 소처럼 한발 한발 온몸으로 강도 높게 밀고 나가 는 실천만이 해결책이었다.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이희범	편집인 이승무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 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702-2233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광고기획 한우리 SJM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대준



| 김대준 Tax Planner

세무전략연구소



절세를 비롯한 세무계획을 세워주고, 각종 조세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무 전문



02. 6933. 6460



02. 3443. 9698



kdjtaxlab@nave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51, 삼원빌딩 3층



<http://kr.ncsoft.com>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상 그 이상을 실현합니다.

오직, 즐거움을 위해

